朝鮮日報
夕刊
二十一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生死未判의蔣中正!

蔣氏는이미射殺?

南京에의親書는僞造

張氏抗日提議에絶對拒絶로

北平官邊은射殺確信

【北平廿日發同盟】北平官邊에서는蔣介石氏가十二日華淸池에서殺害된것을確認하엿다 即 張學良氏의抗日提議를 絶對拒絶하엿기때문에 드듸어 親衛隊와함께殺害되엿는데 그遺骸는 산것가티 만들어노코 生存說을 流布하엿다

【北平廿日發同盟】南京側으로부터 冀察側에達한 密電에依하면 蔣鼎文氏가西安으로부터 携行하엿다하는 蔣介石氏의親書는 全然 僞物인것이判明되엿다 蔣介石氏는 十二日事變發生과함께 射殺되고 張學良이 中央의討伐軍出動을 遲延시키는 方策으로서 일즉이 父張作霖의死를 奉天에서 二十數日間 秘密히하고 世上을 瞞着하던것과 同樣의 手段을쓴것을알게된 中央은 二十日討伐의最後的 決意를決定하고 모든 犧牲을拂하야 張學良軍을 殲滅하기로 決定하엿다한다

少數要人除한外엔 中央將領全部射殺

【上海廿一日發同盟】張學良軍의 叛亂과同時에 西安城內에잇든 中央軍의 將兵은 少數의 要人을 除한外에는 中國一流의 慘濟한 手段으로 虐殺되어 悲慘한 最後를 마치엇고 憲兵團長楊振亞氏 西安公安局長馬志强兩氏는 事件發生과 同時에 第一먼저 血祭에 오르게되엇는데 一方 馬局長은 無慘하게도 西安城門에 못박히여죽엇다

于學忠軍도叛旗

甘肅省重要官廳襲擊

【上海二十一日發同盟】中國側着報에 依하면 于學忠의 蘭州駐屯東北軍은 西安쿠데타에 呼應하야 十三日夜 兵變을 이르키고 中央軍의 武裝解除를 行한 同時에 甘肅省 綏靖公署 蘭州公安局을 襲擊하야 武裝全部를 奪取하며 各機關의 重要職員의 大部分을 射殺하고 綏靖公署參謀以下 多數를 監禁하엿다 于學忠은 張學良의 支持를 어더 十五日 西安으로부터 蘭州에 歸還하야 一切의 指揮에 當하고잇다 麾下의軍隊는 西安과의交通路인 西蘭公路沿線一帶에 配備되고其他는 또 西北方으로부터南進中의 共産軍과 西安과의 中繼連絡에 當하고잇다 (寫眞은 于學忠氏)

胡宗南軍孤立無援

【上海廿一日發同盟】張學良氏의 蘭州線兵力集中과함께 甘肅省東南部 天水一帶에잇든 蔣介石氏 直系의 胡宗南第一師는 孤立無援에 陷하야 東路軍의 進擊이急히되면 張學良軍은 退路를阻止하야 同軍을 殲滅하고 甘肅奧地에 逃亡할것은 必致이다 一方西路軍의 急速한 進擊은交通線路의 不便으로 全然期待할수업스므로 胡宗南軍은 于學忠軍에게 死命을制하게되는 窮地에 陷入하엿다

安協性絶望으로 討逆行動을再開

政府機關通信의發表

【上海廿一日發同盟】國民政府機關 中央通信의 發表에 依하면 張學良은 中央의 大規模的 討逆行動、特히 中央空軍의 西安爆擊을 念慮하고 蔣鼎文氏에 蔣介石氏의 親書를 携行케하야 歸京시켯는데 蔣鼎文氏는 一般 期待되던과가리 事

서 그間 張學良의 態度를 完了하기 爲하야 한 折衝에 不過하다는 觀測이 中央要人間에 傳播되게되엿다 그래서 蔣介石氏가 十九日中에 南京에 歸還할수잇다고 말한것은 單純히 蔣介石氏自身이 그 實現을 希望하고 또自身이그리 判斷한 程度에 不過하다고 信하며 中央은 元來부터 蔣介石氏의 救出에 努力하나 學良이 現在와가튼 明白한 叛亂態度를 維持하는限 救出實現은 到底히 困難하다고 밋게되엇다 따라서 中央으로서는 바야흐로 學良과의間에 如何한 妥協條件도 討議할餘地가 업다고 어데까지던지 强硬한 態度로써 進行하게되엿스며 또 蔣介石氏釋放의 約束期限도 이미經過하엿슴으로 旣定方針에 基하야 學良攻擊行動을 再開할것이라고 推測된다

張學良에投降勸告

【上海二十一日發同盟】漢口來電에 依하면 中央軍의 飛行機十數臺는 二十日正午 隴海線으로 飛하야 西安의 上空에 到하야 蔣介石氏의 釋放과張學良의 投降을 勸告한 宣傳單 十萬枚를撒布하엿다

中央軍華縣占據

張氏二部隊武裝解除

【上海廿一日發同盟】漢口來電에 依하면 中央軍은 二十一日早朝부터 飛行機의援護下에 張學良軍에對하야 攻擊을開始하야 華縣城外에서 張學良軍을 擊破하고 待機中의 張學良軍劉多荃部隊에 猛烈한砲火를集中하야 同日正午中央第四十六軍樊崧甫部隊는 完全히 華縣을 占據하야 敗殘의劉多荃部隊의 武裝을 解除하얏다 午後三時에는 中央軍은 隴海線에 沿하야 赤水로 向하야 進擊中이다

도날드顧問 二十一日歸京豫定

【上海廿一日發同盟】中國側着報에依하면 도날드氏는 二十日西安에入한 宋子文氏와 協議한結果를齎來하고 二十一日飛行機로 西安發一路南京에 歸還할豫定이라한다 또國民政府首腦는同氏의 齎來할消息을기다리고잇다

叛將學良

決戰決意强固

【上海二十一日發同盟】中國側着報에 依하면 張學良은 中央의討伐宣戰布告에 對하야 마침내此에 對抗하야 中央軍과 決戰할意思를決하고 麾下全軍에 下命하야 中央軍邀擊의 陣容을 整頓하엿다 十九日夜는 中央空軍의 夜襲에 備하야 西安全市에消燈令을 發하고 非常警戒를嚴布하얏다 白雪에 더핀 古都西安은 無氣味한 靜寂한밤을 一夜새엇다

劉峙氏潼關에 總司令部設置

【上海二十一日發同盟】討逆東路總司令劉峙氏는 潼關에總司令部를 設置하고 徐庭瑤氏를 前敵總指揮에 또 陳安乾氏를 總參謀長으로 任命하고 同時에 討逆東路軍의配備는 이미 大體完了하엿다는旨를 發表하엿다

張學良軍兵變에 蘇聯은關係업다

蘇大使館中國에通告

【南京二十日發同盟】駐中蘇聯大使代理시슴앞와넥氏는 本國政府의訓令에 基하야 十九日午後外交部에 張群部長을 訪問하고蘇聯邦은 西安事變에는 何等關係업다는旨를 正式으로 通告하고 左와如히 要求하엿다

蘇聯邦은 今次事變에 直接으로나 間接으로나 絶對로無關係하다 蘇聯과의 背後關係等等의 浮說은 全然事實無根이다 蘇聯邦은 滿洲事變以來張學良과의 間에 如何한關係도맷지안흘뿐아니라 中國共産黨과도 조곰도 連絡이업다 따라서 共匪行動에는 何等責任을負할수업다 國民政府는右와如한데마取締에 速히適當한處置를取하기바란다

蘇、調印拒絶不拘코 條約內容은實施

最惡의境遇에對한對處策決定

漁業條約推移注目

【東京電話同盟】日蘇漁業條約調印問題에關하야 二十日午後四時半 外務省東鄕歐亞局長 加瀨歐亞局第一課長 松本條約局第一課長 齋藤事務官及 井出農林省水産局監督課長等 外務、農林兩省間의 關係官參集하야 重光大使의 公電을基礎로 여러가지로對策을 協議하엿는데 東鄕歐亞局長은 同六時外相官邸에 有田外相을訪問하고 重要會談을 遂하엿다 日本政府로서는 蘇聯側이 日露講和條約第十一條及 日蘇漁業條約第十五條의 規定에依하야 漁業條約作成의 義務를負한것임으로 蘇聯側의 國內手續에依하야 萬一年內에 同條約에 調印치안는境遇에는 當然他便法을 講究하야 現行漁業條約의內容을 그대로 延長시키는措置를 講究하라는見解를 取하고잇다 따라서蘇聯側이 어데까지던지 國內手續未了를 理由로調印을 遲延시킬境遇에는 日本政府로서 如斯한方策에 나갈것이라밋는데 如斯한措置를 講究치안코도 蘇聯側이調印을 回避하면 日蘇漁業條約第十五條에依하야 當然同條約의效力은 그대로 延長되는것이라는 見解에依하야 斷乎蘇聯의 遷延策을 물리칠 方針인것갓다

重光大使리氏訪問

【莫斯科十九日發同盟】莫斯科駐箚日本大使 重光葵氏는 十九日外務人民委員部에 리트비노프委員을訪問하고 漁業條約調印問題에關하야 重要會見을 行하엿다 席上重光大使는 外務省으로부터의訓令을 傳達하고 日本政府는蘇聯政府가 速히漁業條約의調印을終了하도록 希望한다는旨를 强說하엿다 此에對하야 리트비노프委員은 從來의態度를 反覆하고 左와如히述하엿다

本問題는 모다政府의 手中에잇다 따라서 무엇이라回答할수업다 但數日中에 수고시러우나 한번더足勞를바란다

第七十議會迫頭

情勢如何론波瀾難免

【東京電話同盟】豪華華麗한 現代建築의 粹를凝한 新議事堂에서 最初의議會인 第七十議會는 마침내 來二十四日召集 二十六日에는 恒恐하옵게도 天皇陛下의親臨을 仰하야 光榮의 開院式을 擧行하기로되엿는데 今議會는 二、二六事件의 後를바더 成立된 廣田內閣最初의 通常議會로서 所謂庶政一新을 標榜한 現內閣의 具體的政策에 對하야 全國民의 忌憚업는 批判을바들것이다 그리고 內外重要問題山積한此際此에對한 現內閣의施政對策에對하야는 政黨 貴族院方面에서도 漸次不滿의비치 濃厚하야 政黨側은 當然히 憲政擁護의旗幟下에 政黨의實力과 威信을 一擧로 回復시키도록 各黨과도 各各 同盟의 檢討를 進行하고 同時에 對議會策에 遺漏업시 陣容을 鞏固히하고 잇는데 此에 對한 政府의態度 應答의如何에 依하야는 相當히 重大한 波瀾을 이르킬지도 물으며 或은軍部官僚勢力에 對한 政黨의 失地回復의 關原戰이라고도 볼수잇다 그러나 政黨도 亦是時代의波紋에 依하야 內部에 各種의潮流가 錯綜하야 그統制에 相當히 深刻한 煩惱를 抱懷하고잇다 如斯한 情勢下에 各政黨도 二十四日의 召集日을 압두고 二十三日에는 一齊히 議員總會를 열고 對議會의 陣容을 整備하고 氣勢를올리고잇다

年末年始諸行事

總督府에서는 來二十八日 御用納式을擧行、多事多端한 昭和十一年을 보내기로 되엿는데 年末年始에亘한 諸行事는 同御用納式、元日의 新年拜賀式 四日의 御用始式等을 左와如히 擧行하기로 되엿다

▲御用納式(二十八日) 午前十一時三十分부터 第一會議室에서 判任官以上 參列한 後 大野政務總監의式辭 南總督의 人事가 잇슬터이다

▲新年拜賀式(元旦) 午前十時五十分부터 南總督은 在城各國領事團及 外國人의祝賀를밧고 同十一時二十分부터 第一會議室에서 高等官以上及 朝鮮貴族參列、御眞影奉拜、同三十分부터 判任官以上參列 御眞影奉拜、南總督은 職員代表의 參賀를 밧고 式後 全廳員은 홀에 參集、冷酒를 난우며 聖壽萬歲를 唱和하고 新春을 祝할터이다

▲御用始式(四日) 午前十一時부터 第一會議室에서 全廳員參列、南總督이 人事、大野政務總監의 答辭가잇고 式을 終了할터이다

西部海岸『샤틀』에 二飛行艇隊新設

米、太平洋防備强化

【샨디아고十九日發同盟】米國海軍省은 太平洋防備强化案의一部로서 또 샤틀市에海軍哨戒飛行艇隊二部隊를 新設하기로 決定하고 이미人員養成 其他着着準備에 着手하엿다한다 右에對하야 米國海軍省 航空局長킹少將은 十九日 샨디아고港에서 左와如히 說明하엿다

海軍省은 太平洋防備强化計畫의 一部로 샤틀市에 六機乃至十二機編隊의 哨戒飛行艇隊 二個部隊를 新設하기로 決定하엿다 目下샨디아고港에서新部隊의 將校는 猛訓練을 밧고잇고 五日中에 準備를 整頓하야 샨디아고샤틀間의編隊飛行의途에오를것이다

八面鋒

◇蔣介石氏가 도죽엇다고한다。 몃번죽고 몃번사는가。燈臺의明滅에 死活을맛긴배와가티 中華民國의 運命도 死生의岐路에서彷徨。

◇日蘇漁業條約은 調印與否가 말성되야 莫斯科의交涉이 一進一退。

◇東京議會도 開期가明迫。

◇新議事堂落成後 最初의議會이니 무슨 生新한 場面을 뵈워주랴는지。

人事·集會

▲南總督 二十一日午後六時倭城台官邸에 第二十師團管下現役將校配屬將校四十餘名을 招待晩餐會開催

▲武者鍊三氏(京電專務)二十二日歸任

외國人土地法 二、三日中施行

前부터 懸案으로되여잇든 外國人土地法의 朝鮮施行에關한勅令案은 中央各方面의 折衝을마치고 마침내明二十二日의 閣議에 附議하고 正式決定한後 御裁可를經하야 二、三日中에 公布 即日實施를豫定인데 公布와함께 同法施行의 重要性에鑑하야 當局으로부터 聲明을發할豫定이다

랑카샤綿業 總罷業決行

【倫敦十九日發同盟】랑카샤綿業勞働組合은 賃銀引上、最低賃銀確立을要望하고 傭主側과 抗爭中이엿섯는데、드듸여十九日午後零時綿業勞働者十萬人은 一齊히總罷業을決行하엿다 勞働者는傭主에對하야 一九三二年賃銀引下以前의賃銀에 即時復活하도록要求하고잇다 이에對하야 傭主는만체스터에서 勞働者側과會見하고 妥協工作을協議하기로되엿다

無代進呈

流行型腕卷クローム側時計形磁針計指針正確

大景品 此新聞愛讀者라고明記한後辭典七冊組注文者에限하야辭典普及大宣傳키爲해ㅏ記의特別大景品一個씩無代進呈함 此景品은書籍과同封包裝送附함

大景品付 七冊辭典大賣出

七冊을單買壹圓卅錢에投賣

左의大辭典七冊殘本處分키爲해七冊同時에注文者에限하야單只一圓三十錢에投賣함(外에送料二十五錢)
○代金引換注文은葉書로申込次第一圓七十錢着急送

破天荒의大安價 總紙數二千餘頁

發行所 東京·麴町·九段三丁目 振替東京五九九四四番 積文堂書店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電光一一五九

빅타一大樂盤
短歌 리별가 離別歌 (李香 J-一〇五〇)
雅曲 탈춤 諺文뒤풀이 (金周 J-一〇五三)
合奏 打鈴 軍樂 (빅타朝鮮樂團 J-一〇五四)

빅타-레코-드 一月新譜
流行歌 酒店의밤 (李圭南 四九四四七)
流行歌 異域의길손
新民謠 압록江 (林景 四九四四六)
勿忘草
流行歌 사랑해주서요 (金福姬 四九四四八)
女子의마음 (薛道植)
俗謠 萬頃蒼波 (金玉眞 四九四四九)
新民謠 難事打鈴

第十四回全州藥令開市
藥令開始日 自昭和十一年十二月廿三日(丙子十一月十日)至昭和十二年一月十日(丙子十二月末日)
藥令到着貨物에代金引換은志願에依하야應換함
但現時價半額以上에超過치아니함
其他設備는前年에倍加優待하야來客의便利를圖함
主催 全州藥令市場組合 全州漢藥商組合
後援 全州藥業永成會 全州藥令市仲介組合

十六日부터 革新開業
◇朝鮮料理는勿論「스끼야끼」는平壤肉을直接仕入하야特別調理하겟슴니다
朝鮮料理 天一舘 宴會席完備
京城瑞麟町八九 電光八二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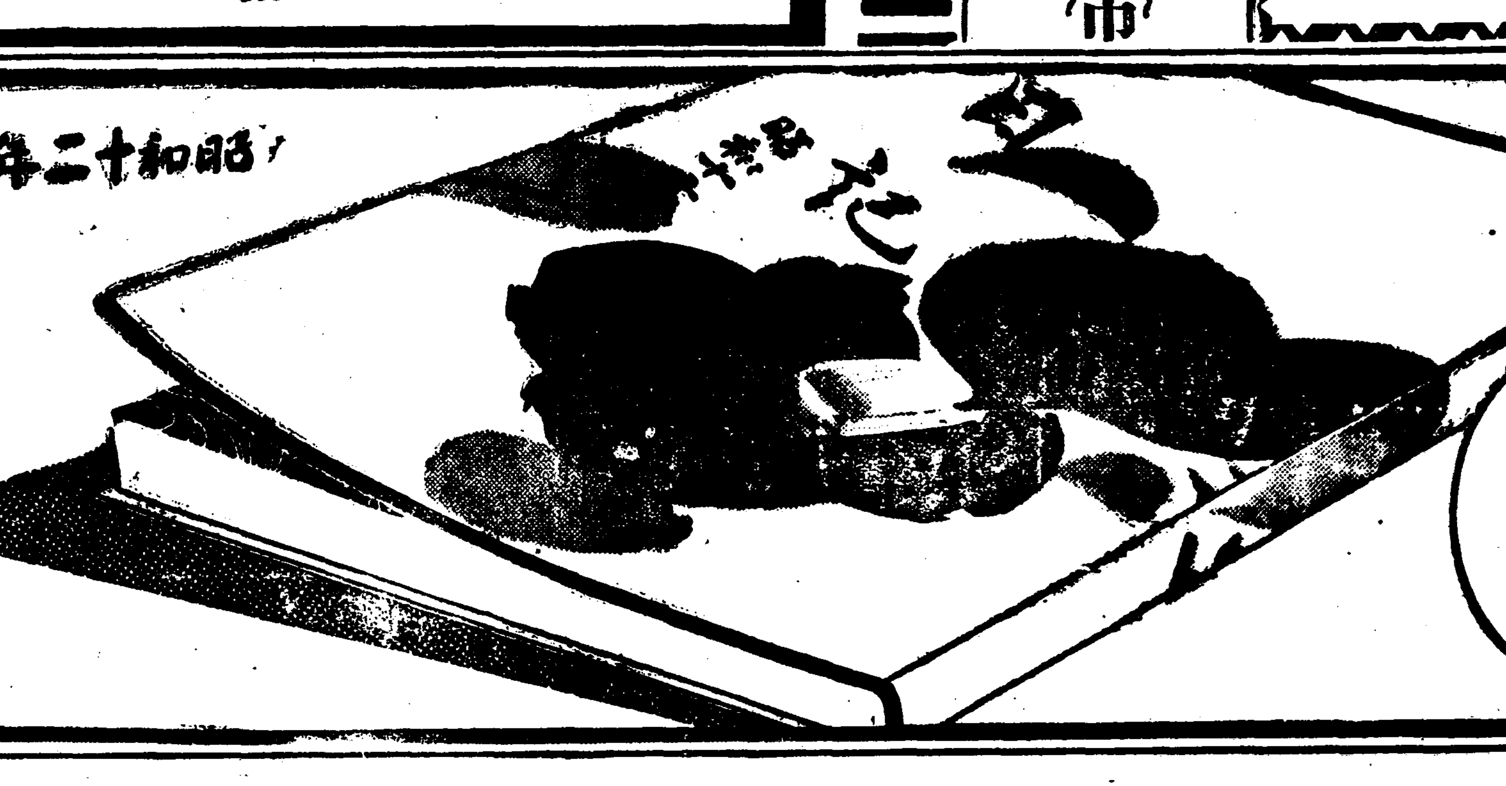
家庭日記發賣

昭和十二年

멘소레-담本舖編輯

○四六版二三四頁 옵셋트印刷
○平井楳仙畵伯 表紙繪
○青年들을標準編輯한모-던日記
○家庭、學校、工場會社에서執務하는이에게드리는 네日記、
○씀에便利하고읽음에有益한重寶日記
○註文하실때는朝鮮日報名을함께써주십서오
郵便切手로直接發賣元으로申込하십시요

發賣元 近江セールズ株式會社 滋賀縣八幡町 振替大阪五四五三番



一部 20錢 送料共
日記出版界의驚異 最廉價版

街頭에부르짓는同情

救世軍慈善남비

오늘부터 골목골목에

三同會는行旅病者收容開始

一九三六년의 달력도 마침내 몃장이 못남엇다 업는사람의 설움 약한몸의 고달품은 어느때나 일반이나 해마다 한번식 넘어왓스며 누구나 넘어가지안코는 살수업는 세모(歲暮)의 험한고개! 그는 새볼의 기쁨을 마지하기위함이라고하나 너무도 고르지못한 험로(險路)이다 가난한사람 약하고 병들은 사람들을위하야 한푼의 동정이나 한술의 동정쯤이야 못하는 일이아니요 안하는일일것이다 하지만 동정을 하기쉬운 기회를 만드는것이 구세군의남비이다 금년세모에는 산매미가는 동정금이 모힐것을 기대리고잇다 그리고 행려병자(行旅病者)를위하야 그들을 잠시라도 수용할것이 생겟스니 이런 칠확한 세상에도 이런 따뜻한 일을하는 사람들이잇다 구하기를 기대리는것도 사람들이요 그를 구하는것도 또한 사람들의 할일이라하겟다

해마다 년말이면 가두에 나타나는 구세군(救世軍)의 「慈善금잇는남비」는 올해도 이십일일부터 길거리에 나와서 그남비를지키고섯는 구세군은 추위를 무릅쓰고 중(衆)을 흡흡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야 동정금을 떤지라고 웨치고잇다 엽(葉)가락 모호면 한사발의 밥이된다 업마라도 조홋니 귀찬타말고 오고가는 신사숙녀는 주머니를털려서 동정금을 떤지라

지난이십일에 시내유지윤치호(尹致昊)씨등 시내유지들의 긔독교인 유지들의 발긔로 겨울철 시내거리에서 병들고 굶고어러서죽는들 상한 사람을 구원하기위하야 그 기관으로 삼동회(三同會)를 조직한것은 그당시본보에 상세히보도하엿거니와 그동안여러가지 그준비에 분망하든바 이제 시내서대문정(西大門町)일정목 번지 피어선성경학교(彼魚善聖經學校)구내에 그회관을 신축하고 모든준비를다하야 드듸여 이십일일부터 이고마운 긔관이개편하게되엿슴 이로인하야 가두에서 동사하는사람이 업서저갈것으로 특히 일반의 만흔후원이 잇기를바란다고한다

일먼지 음식점고용인 최금복(崔金福)(二八)은 이십일일 오후세시쯤 에의정서사장 정운현(鄭雲鉉)집으로와서 시가이십원 가치의 작나긴바지를 사원에 잡히라다가 서대문서원에게 붓들렷다

牛皮도적

부외 면수(?)

(崇仁面水踰里)김영환(金永煥)(二)은 이십일오후세시반 동대문서원에게 추격을바더 시내창신정(昌信町)이백 구십삭번지 압길에서 체포되엿는데 그는십칠일 오후한시쯤되여 부외미아리(彌阿里)유명옥(劉明玉)의 우육점에 들어와 소가죽백장을 훔처 파러먹은것을 자백하엿다

白晝에鐵塊窃盜

벽주에 쇠뭉치를 훔치넌 대담한소매—이십일아침 열시쯤 되여 강원도 철원읍 관전리(官田里)백구번지에 원적을둔 김시권(金時權)(一七)(假名)이란소년은 왕십리역 철조망안에 노혀잇는 구리줄(時價五十四圓)을 훔처내여 메고다라나다가 순시중의 동서원에게 체포되엿다

漣川에虛僞强盜

被害者布木商申告는

犯罪를숨기기爲한虛構인듯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자일리(抱川郡永北面自逸里)에산다는 필목행상 장귀동(張貴童)(二八)은 지난 이십일 오후네시반쯤에 련천군 미산면 마전리(麻田里)근처 고개에서 식도를 가진 강도 세명을 맛나서 가젓든 인조견 사십전(四十匹)과 자전거한대(시가 원)를 강탈 당하엿다고 그날 오후일곱시에 련천경찰서 관내 전곡주재소(全谷駐在所)에 신고하엿다 그주재소에서는 곳 련천경찰서로 보고하야 범인수사의 활동을 하고 그에게대하야 더자세한 상황을 조사해본결과 그의 공술에 수상스러운점이잇고 또 한 그가 거처왓다는곳을 조사해본바 그는 강도맛낫다는 시간에는 전연히 그장소에간 형적이업고 강탈당하엿다는 필목은 가진것을 본사람이 업다하며 다시 그는 그군 읍의 어떤상점에서 필목을 팔아서 그것으로 빗을 갑흔 사실이 들어나서 그가 무슨 범죄를 숨기기 위하야 이러한 허위신고를 한것이 아닌가 하야 방금 엄중취조중이라한다

珍島에서渡船顚覆

廿一名乘客遭難

八名은行方不明·其他는救助

木浦署救助船急派

【木浦電話】이십일오후세시경 전남진도군지산면 소포리(珍島郡智山面素浦里)에서 도선(渡船)이 전복하야 승객이십일명중 팔명은 행방불명이되엇다한다 이급보를접한 전남경찰부에서는 목포(木浦)서에 배속한경비선 금강환(金剛丸)을 현장에 급파하야 구조수사를 하고잇다한다

死體三個發見

【珍島電報】지난이십일오후 세시반경 진도군지산면소포(智山面素浦)에서 나루배가 침몰되여 승객이십일명중 아홉사람은 구조되엇고 사체세명은 발견되고 행방불명된사람이 여덟명이라한다 급보를바든 경찰서에서는 경비선을출동하야 시방조사중이라한다

滿員이룬遊廓에

破興식힌消防車싸이렌

알고보니神經過敏의넌센스

이십일일 새벽세시경 신정유곽(新町遊廓)에 웃지못할 넌센스극하나이 연출되엿다고한다

그날오전세시반경 경성소방서 망루(望樓)에서 신정유곽(新町遊廓)일력루(一力樓)에서 불이낫다 하는바람에 숙직소방원들은 깜짝놀라 요란스러운 소방차 「싸이렌」소리를내면서 현장에 출동하엿든것이다 그러자 이소방차의 『싸이렌』소리에 깜짝놀란 유객(遊客)들은 뽀나스경긔에 집집마다 만원의성황을 이루고잇든 요사이라 그만홍유객들은 단꿈을맛보고잇든판에 때아닌 「싸이렌」소리에 감작히 놀라 그저 살려주십시요하고 입을것도 입지못하고 이집저집 뒷골목으로 빠저다라나는사람들이 우왕좌왕하야 색다른풍경을 이루엇다고 한다 일편소방차가 현장에가보앗스나 불난곳이라고는 도시 보이지안하서 잘조사하여보앗더니 일력루에서 날세가 감작히 추어젓슴으로 불을만히때엿더니 연통에서 벌건불똥어리가 바람에 나부껴서 흐터지는것을 소방서에서 그만불이난줄만알고 그리하엿든것이라고한다

꼬몰대는鼠賊!

西署年末警戒에被捉

서대문서 년말경게에 좀도적 세명이 걸렷다

▲현저정(峴底町)사십륙번지칠백칠십호에사는 엄규순(嚴圭淳)(二六)은 이십일일 오전여덟시쯤에 의주통(義州通)일정목 륙십사번지 길야(吉野)과자상점에서 과자한봉을 훔처가지고 가다가 붓잡혓다

▲충남(忠南)출생으로 홍제정(弘濟町)에사는 정상국(鄭相國)(二六)은 이십일오후네시쯤 수표정(水標町)엇던공장에서 제목을 절취하야 집으로 지고가다가 체포되엿다

▲광화문통(光化門通)일백사십

省齋育英會給費生

第一回十名選定

專門以上男子九名、女子一名

貧困學徒에天來福音

성재육영회(省齋育英會)에서는 금번도의 회지급여생(給費生)을 선발하기위하야 지난 십구일오후두시 소에서 리사회를열고 협의선정(選定)하엿다 원래금번에는 우선 다섯사람만 선발하게되엿든것이 사회각방면의 기대하야 가컷고 도지원자가만핫기때문에 예정한급비생의 배수을 그회게엿 급비생으로 결정하게 이번에 선발된급비생의 학교 외씨명은 다음과갓고 녀자는단한사람이다

選拔된給費生

- 東京日本女子齒科醫專 金明鎭
- 東京中央大學法學部 崔判任
- 京城帝國大學豫科理科 崔龍澤
- 同 上 文科 兪東濬
- 延禧專門文科 許光寶
- 세부란스醫專 鄭桂鶴
- 普成專門商科 李孝九
- 京城醫專 金容鎬
- 京城法專 徐貞賢
- 京城高等工業專門 陳英洙

今年大水害의선물

山崩地復舊工事

百六十萬圓으로三個年繼續

千八百町步砂防改修

금년수해에는 특히 산이문허저 만흔 인명의사망자를 내엇는데 총독부림정과(林政課)에서는 이와가티 재해에 문허진산의 복구공사즉 사방공사를 실시하게 되여 명년도예산에 요구하엿든바 대장성의승인을 바덧다

그내용은 명년도부터 삼개년간의 계속사업으로 산붕(山崩)지 대일천팔백정보에 일백륙십만원을가지고 복구공사를 하게되엇다한다

네온工夫墜落重傷

십구일 오후두시오십분경 남대문통(南大門通)일정목구십구번지 만영상회(萬榮商會)집웅우에서 네온공사를 하고잇든 북아현정(北阿峴町)신정수(申正洙)(三)는 기와한장이 깨여저서 떠러지는바람에 발드듸고잇든 사닥다리가 밋그러저 땅에떠러저서 노피 약열다섯자가량 되는데서 그냥떠러저서 포도우에 얼굴、코 등을상하야 방금 종로(鐘路)이정목 민중병원(民衆病院)에 입원치료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祝融의亂舞!

一日間二處에出火

이십일일새벽 시내종로서관내에는 정체모를 괴상한불이두번잇하야 세군데서나 불이낫는데 일반가정의 각별한불조심이필요하다

▲이십일일 오전두시경에 시내종로부암정관파출소에서 숙직하고잇던 종로서원이 시내사직정원(社稷公園)뒷산에서 불꽃이크게 일어나고 잇는것을 발견하고곳 소방자동차와함께 현장으로달려가보앗스나 정작 가보니까 아무데도 불붓는곳이 업서서 헛거름으로 도라왓는데 그순사의착각이 아니라면 그불의 정체가 무엇이엇든지 자못의심을 주는것이라고한다

▲이십일일 오전세시경에 시내팔판정(八判町)일백사십번지 로성경(盧聖敬)(三五)의 집싸리기통에서 불이난것을 곳발견하고 꺼버렷는데 불때고난 재로부터 일어난것이라고한다

▲이십일일 새벽네시반경 시내청진정(淸進町)이십이번지부근 숭가지 산데서 불이낫스나 곳발견 탐중이다

冬暖으로地陷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廣州郡九川面)으로부터 광나루(廣津橋)에 이르는 등도로가운데에 광진교와함께 신설한부분 약이천미돌은 요지음 비가 오고 날세가 따뜻한 탓으로 길바닥이 풀려저서 자동차통행이 곤난하게 되엇다 그래서 방금 응급수리를 하는중이라한다

議政府農事訓練所修了式

의정부(議政府)에 잇는 농사훈련소(農事訓練所)에서는 오는 이십삼일 오전 열시에 수료식(修了式)을 거행할터인데 수료생은 삼십오명이다 그리고 식을 마친뒤에는 경기도회의원 비총정태(肥塚正太)씨가 기증한 이궁존덕동상(二宮尊德銅像)제막식(除幕式)을 거행할터이라는데 그날 탕촌(湯村)경기도지사의 훈시(訓示)도 잇슬터이라한다

"空것을조하하면"

景品뽑다喪財한鄕客

이십일오후 세시경에 시내종로 이정목화신(和信)상회경품권인환소(景品券引換所)압헤서 시내 금해(金海)(三)가 경품을 뽑는동안에 현금이백원을 도적마젓는데 방금소관 종로서에서는 범인을엄탐중이다

電車에서"스리"

시내통의정(通義町)사는 강수복(姜壽福)(二八)은 김래성(金泰成)(二)은 시내행 전차속에서 사십여원의 스리를하고 종로서원에게 붓잡혓다

市街地計畫으로

破壞되는高句麗古蹟

輯安縣通溝에博物館設置說

【平壤】시가지계획으로 인하야 유서잇는 고적이 아직조사하지 안흔채 파괴를 당하고잇서 고적보존회와 박물관당국에서는 적지안흔 불안을 가지고잇다。이때문에 평양방면에서는 부당국에 경고를 발하여 파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잇다。또 만포진대안(滿浦鎭對岸)에는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의 고분이 산재하여 고고학자의 귀중한 연구의 대상이되여서 금년가을에도 학자들의 손으로 조사까지 하엿는데 만주국에서는 만포진대안에다가 만포선개통과가티 인구십수만을 포용할 대도시계획을 하게되여 자연히 고분(古墳)과 산성(山城)등의 유적이 파괴를 당하게될 운명이므로 고적보존의 계획을 진행하기로되여 그 방면에 박물관을 세워서 이긔관으로 출토품을 수진하여 보존하기로 이야기가 진행되고잇는데 평양박물관에 원조를청해왓다한다

盜失外套發見

犯人까지逮捕

시내가회정(嘉會町)삼십삼번지

妖婦阿部"오사다"에

懲役六年을言渡

世道人心에影響多大

【東京電話同盟】한참동안 렵긔적선풍을 이르킨 저 유명한오사다사건의 주인공되는 아부정(阿部定)(三)은 지난 여드레날 열렷든 공판에서 주정(酒井)검사로부터 징역십년을 구형햇섯는데 이십일일오전열시부터동경형사지방재판소에서 세곡(細谷)재판장으로부터 징역륙년——의 판결언도를 바덧다 이형을바든 아부정은 아모런 이의가 업시 오직 가기를 가저질는지도 비추어 도리혀 만족하다는 태도를 보히고 곳옥 역하기로햇다

敎練徹底를懇談

지육(智育)편중을 타파하고 덕육(德育) 체육(體育) 두방면 ―향양에 주력해서 중등、전문각학교입학시험에 명년도부터 전승 새방침을 실시하기로된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다시 학교체육과 학교교련의 철저를 긔하기위하여 군부방면과 긴밀한 련락을 취한후 학교교련의 원활보급확충을 하기로되여 이십일일 오전아홉시부터 룡산해행사(偕行社)에서 제이십사단 수노부의 밋그사단관하학교 배속장교는물론 총독부 학무국 관계자가 협의회를 열고 여러가지 간담을 한 바가잇섯다

天氣予報

概況 七五六粍의低氣壓은日本의太平洋岸에잇고 七七四粍의 高氣壓은 中國中部로부터 朝鮮과滿洲에擴大되고 國境中部에는 七七六粍의 局部的高氣壓이잇다

오호츠크海方面에는 氣壓이낫고 滿洲國境地方과 西岸은 晴、南岸과 東岸은흐렷다。處處에降雪 氣溫은明朝보담 五度內外나低下되엿다 日本內地는비가오고 處處에 눈이온다。

豫報 今夕이나 明日에는北西風 晴、

昨日	最高	二度八
同	最低	零下四度二
今朝	最低	零下六度九
今日	正午	零下二度

運動

甲子園遠征!

培材러비

昨年優勝校와對戰

第十九回全日本中等學校蹴球選手權大會는 明年一月二、三、五、七日의四日間 大阪甲子園運動場에서 開催될터인데 各地代表의對陣을決定하여 十八日에 發表하엿는바 朝鮮代表의培材高普는 二日午前十一時四十分부터 前年度優勝校인 天理中學과 第一回戰에서 對戰케되엿다

▲二日 午前十時入場式 △十時半 ……代表 △十一時四十分 培材對天理中學 △午後一時五十分 秋田工業對神戶一中 ……

▲三日 午前十一時 ……▲五日 午後一時半 準決勝 ▲七日 午後二時半 決勝

硏武館今年度

昇段進級者發表

朝鮮硏武館에서는 同館 …… 試合成績을 審査한結果 十九日에 昇段進級者를 發表하엿는데 그 名單은 다음과갓다

▲四段=李 ▲三段=…… ▲二段=…… ▲初段=…… ▲一級=…… ▲五級六名(少年部) ▲六級=……

高血壓中風

血液이溷濁한原因

今津博士의새로운硏究

(左)硏究中의今津博士

이병은주먹즉、뇌일혈、당뇨병 신장병등으로 혈액이 탁하고 동맥이 강화하야 혈압이 높하저서 뇌연뇌의혈관이 파열되는고로、원인인이 탁한혈액을 정화식혀 동맥강화의 원인을 업새고 혈압을 낫게하야 신경의고장을 업새면 조타 결코 불치가 아니라는것을 증명한 今津博士는 귀중한 유명한 연구를 발표하엿다

이병으로고민하는사람은 속히 신용잇는 大阪市阪急梅田通北一四五 今津硏究所로 주저말고 오른지 조선일보를 보앗다고 쓰고 본병에 관한 치료하는 방법 양생법 주의사항을 상세친절히 알리킨다

東洋觀大方家

京城府安國町十番地

青邱李烈熙先生의 斷法을보라!

才操로二十年間相法을硏究한後(春岡崔相法先生相法同學)엄ㅣ리中國南北을周遊하야 二所見을 더옥넓히엿는 비밀으로 川서 某處女學未婚前에 結婚될것을豫言한 여러가지의 中國京城서도 某氏의一個月內로 大阪할것을豫言的中한 名相이다 그와가튼實例 가뎌만 허枚擧키難으로 省略하다 오라!

科目 平生興敗、相學、婚姻、就職、結婚、移徙、財數等

鑑料金 一圓以上隨意

場所 (安國禮拜堂이웃)

(各種の房屋水道完入)

李先根小兒科醫院

京城府壽松町二六番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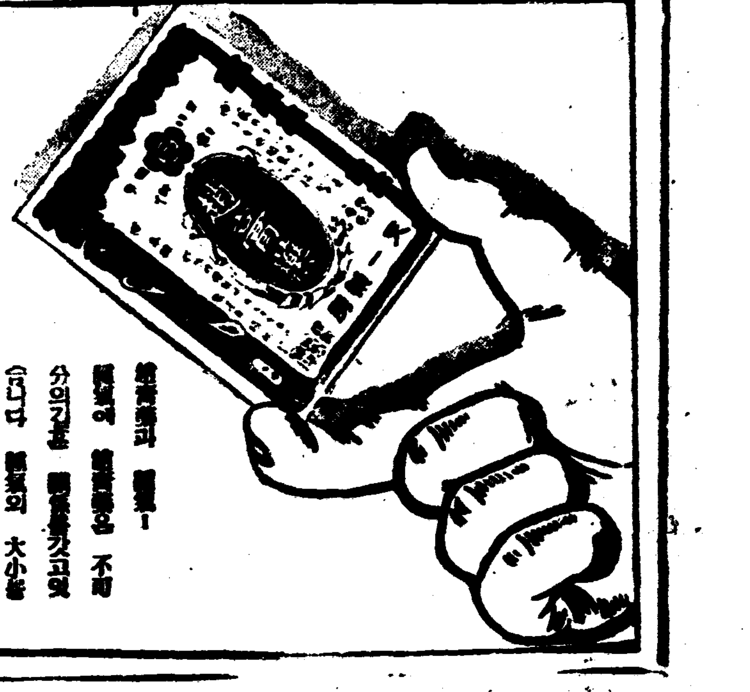
院長 李先根

副院長 龐德興

電話光(3)二〇〇八番

腫症仙藥

趙膏藥



效能 ○모든창부스럼 ○모든 습종 ○유종 ○담종 ○당절나는데 ○발찌 ○구창 ○낙상 ○어혈 ○견비 ○요통기타무명 ○종독

藥價 一五 二〇 錢

全國各地有名藥店에서 販賣합니다

京城鍾路 本舖 天一藥房

軍手의製造

企有望한

專屬製造家募集

十一年型高速度能率機

特別割引으로써 資金의補助的 業者에對하야 各面一名限하야 新規開

豊國軍手京城營業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十九番地

癩病

世間은風病을不治病이라고한다事實風病에걸니기만하면그병으로서一生을맛치게되는것이다그러면風病은果不治病이냐하면決코不然하다何由오하면從來漢醫는이것을簡單히風이라고해서所謂治風하는만藥을使用하엿고癩菌을알지도못하엿든까닭으로萬에一이라도治癒된例가無한것이다

小兒內科

趙漢英醫院

京城府南山町三丁目

電話本局二九八一

流行歌

시달닌가슴

吳子의사랑

콜럼비아레코-드

文獻贈呈

ノンモルピン

モヒ中毒

前京都帝國大學敎授 醫學博士 理學博士 松下禎二先生述

モヒ中毒を 麻苦痛なくて 根本的治療し 特にモヒ中毒を 豫防す

靜脈注射用 二〇cc十箇入 二〇cc五箇入 皮下用 二cc十箇組 二cc五箇組

總代理店 京城府竹添町二丁目 合資會社 京城新藥社 電光(3)二七三六番 振替京城二二二七二番

支店 奉天大西邊門外 發賣元 大阪小寺洋行

兒孩의感氣熱에

かぜのと

가제노도

樂天堂製藥株式會社

쓰리지안코
압흐지안함

로-도안약

事務家·學生諸位의保眼에!

BUSINESSMEN AND COLLEGE BOYS!
Take good care of your eyes! Because: Your visual power greatly affects the efficiency of your work.

視力의障害는能率을低下한다

諸君! 諸君은執務中、勉學中、때때로 頭痛이나 倦怠를感하는 일은업습니까 이것은 視力을 長時間過度히쓰든지 或은 度가 맛지안는眼鏡을 쓰게되면 視神經과 直接連繫되고잇는 大腦質에생기는 異常作用의 發顯입니다。 眼과腦가 그러케까지 緊密한關係가잇는것을 알엇다면、諸君은 諸君의눈에 항상充分한休養을 줄것이며、그리고、보담 新銳한視力을 盛케하야 頭腦를明晳케하며、마음껏 執務와勉學에 能率을다합시다。 그런데上述한 때에생기는 頭痛倦怠의 症狀을 醫學上………

「眼精疲勞」라하지만、그것은特히記帳、計算、타이피스트、講議의노-트、혹은編物、裁縫等、細書한文字의讀書等微細한 物體를 보는분에만흔 近代的疾患의 하나입니다。

眼精疲勞에 걸려슬때에、처음에는 눈이疲勞되기쉽고、物件이흐릿하게보이며、머리가무겁고、질끈질끈아프거나、또는 睡眠이不良하게되면、判斷力、記憶力의 減退를 보게되는것입니다。

만일、諸君이、이와가튼 症狀을 自覺하여슬때에는 곳 그原因이되는것을 避함과同時에 로-트目藥과가튼 眞正한眼科藥을 每日數回點眼하야、眼에休養을 주어、疲勞하는것이 必要합니다。 그外에 諸君의 걸니기쉬운眼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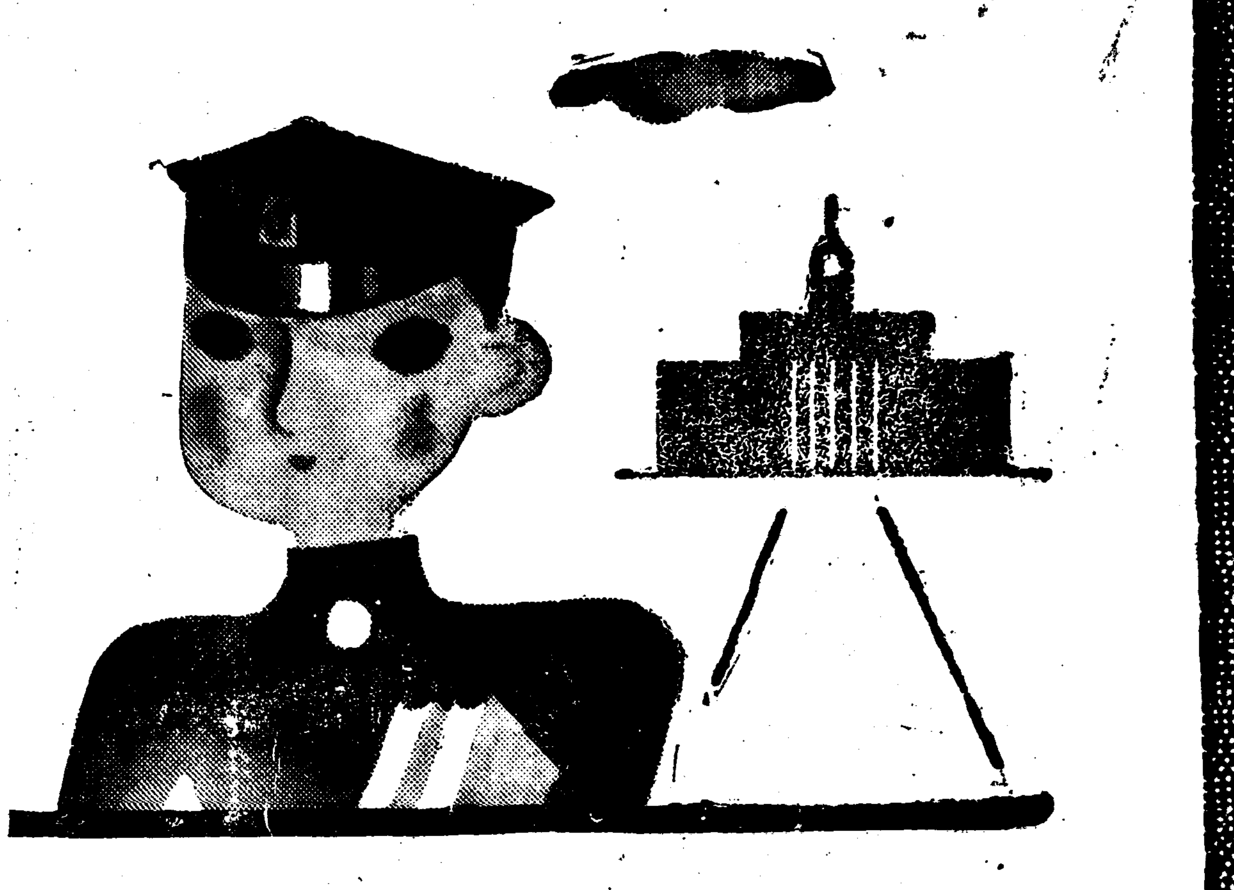
結膜炎
도라홈-
學校眼炎
—이러한것이 잇습니다。

[illegible] 爛目、[illegible]눈、쑤시는눈、진안질、疲勞眼이라고 부르는것인바、[illegible] 지내 [illegible]、눈곱等不快한症을 [illegible] 못지켓고、하로 二三回 로-트目藥을點眼하면 [illegible]

다。 로-트目藥은 그 殺菌作用으로 病源菌을 죽이며、消炎作用으로 炎症을除散식히며 收斂作用、鎭痛作用으로 充血과 腫痛症을退治식히는 性能이 綜合的으로 有効한 効能을 다하고 잇습니다。

小兒의眼病

幼兒면 아침 이러나슬때、눈가장자리에 눈곱이 붓호며 충혈한것은 눈이뜨지안코、또는 흰눈자이에 붉그스레 充血되는바、이것은 흔히 急性結膜炎입니다 어린애기를 點眼에는、시지안코 아프지안코 安心하고 使用되는、特히 小兒들을 爲하야 處方調製한 小兒用 로-트目藥이 가장 有效합니다



適應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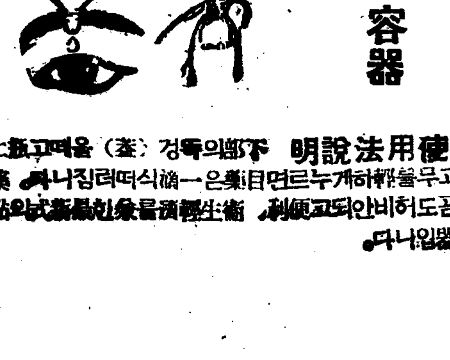
結膜炎・角膜炎・疲勞眼・도라홈-・學校眼炎・眼瞼緣炎・角膜翳・結膜充血・麥粒腫等
俗稱에쑤시는눈、돌님눈、爛目、다락눈、血眼、霞目、삼눈호린눈、雪眼、淚眼、疲勞眼、

藥價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國・어떤藥店에든지잇슴

● 新案特許 ロース式 自働點眼容器



★使用法說明 下部의뚜경(蓋)을떼고 上部[illegible] 의고무를 [illegible]하게누르면 目藥은 一滴식떠러집니다。藥은 조곰도허비안되고 便利、衛生的[illegible] 新式의點眼容器입니다。

本舖 山田安民藥房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

★○○은 접두의 정물○○★

할때 태도로 그의 감정을 자극할 맛이 조금도 업습니다. 아조 수는체 위하는체하고 술을 풀리어야만 합니다. 그 수단방법은 여러분께 일임합니다. 그러고 잘할 취한 사람의 행동은 될수 잇스면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울거나 싸호거나할리면 말릴사록 점점 더ㄲ침들을 모르게 되답니다. 취한사람이 서로 싸홈에는 애초에 레온 싸홈으로 시작한것이 말리는 바람에 큰 싸홈으로 벌어지는 예가 드물지 안습니다. 그저 과치안한 정도까지 말리면 할것이지 말리면 나설 것이 결코 못 됩니다.

×

정한의구의 주정도 걱정이지만은 길거리 떠구나 밤늦게 지내다가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주정바지를하게되는것이 많입니다. 사내가도면 가러 취한체 하고 빨비어 오히려 여기를 지를 수도 잇지만은 안하네로는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런니까 그저 하는수 업시 떠길로 피하야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요 떼면히 조롱체하고 가는것이 그다음의 대책입니다. 공연히 무서워하는 모양을 보이거나 또는 욕을먹고 타내다가는 도리혀 큰 봉변을하게 됩니다.

밤늦어서 돌아오는남편 주정바지가 선물

겨괘는 진짜、개짜의 구별이잇다 그저 갈쩌안는게 상책

연말서부터 새해까지 한참동안은 원낙 연회도 잣거니와 친한 사람 끼리끼리 몰켜다니며 노는 도수가 대단히 만하집니다. 거기 딸아서 느는것은 술타령과 술주정이니 요리집과 술집은 말할것이 업고 거리에는 비틀거름, 골목에는 술냄새 집안에는 취한 사람의 게먼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취한 사람들을 어떠케 다루어야 할는지 안악네들의 대책도 상당한 문제가 아니겟슴니까? 잘못 다루다가는 모르는 손에게 봉변을하는 것도 챙피하려니와 남편이나 아들에게라도 정의를 상하게될 되지안켓습니까?

술주정도 두가지가 잇슴니다. 하나는 정말로 정신이업서서 곤드레 만드레하는것이요 또하나는 말끔하게 정신이 잇스면서 일부러취한체 떼비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신이 업는것은 그야말로 술먹은개라고 가텔것도 못되지만은 가짜주정은 좀 얄밉고 분한 노릇입니다. 가짜주정을 정말주정으로 어루더듬어 버릇하야 노호면 점점 더 양양자득하야 또들을 마시고도주정을 하려 떼빌 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행동이며 주정하는 태도를 냉정히 살피어서 그 어느 종류에 속하는 가를 몬저 간파해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일 가짜 주정으로 확실히 판단될때에는 다시 그런 버릇을 못 하도록 응징할 방법을 강구할것입니다.

×

그러나 아조 취하건 조금 취하건 술먹은 뒤에는 흥분되기가 쉽습니다. 정말 취한 사람을 내밧는 것이 잘못인것은 말할 것이 업고 가짜주정도 브두리나 쌀

술취한데는 감이약이다

주당의가정에 상비할것

요사히는 술을만히먹을 철입니다 여러가지연회는물론 술잔이나 마신다는사람이면 공연스리 흥을하고 출출하야저서 한잔먹고 시픈때입니다 회사에서나 일터에서 일을맛치고 도라오는길에 친구들과 한잔마신술이얼근히취하야서 그냥집에드러가면 첫재 안해되시는분의바가치 긁는소리도 귀치안커니와 수상사람아페내놋키가 거북한것입니다 이러케 술께우는 조흔방법하나쯤은 준비해두고 술을먹도록하지안흐면 밤낫으로 지시를 먹지못할것입니다 술깨깨우는데는 무엇보다도감(柿)이 좃습니다 감홍시로도 좃커니와 생생한감은 더욱좃습니다 만히 먹을사록 술도속히깨입니다 이것을 먹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뒤ㅅ술이 취하지안흘뿐더러 머리게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술취한채로 집에드러가서는 안해되시는 분에게 조금캥기는분은 거리에서 감몃개를 사먹는것도 조치만 안해되시는 분도 술취한남편을 위하야 조금미리사스럼기는 하나감몃개식은 준비하야두는것도 조흘가합니다

가정의학

리고 장안내에서부패하는것을마는 의미로 『자물』가튼약을 먹는것도 조습니다 그리고 갖지 용구사를 해보시지요 피부에는 약방에 가서『왼손씨고약』 또는 『서리산·리니멘트』(石鹼리니멘트)를 사서바르시지요 (大學病院皮膚泌尿科 鄭???)

두두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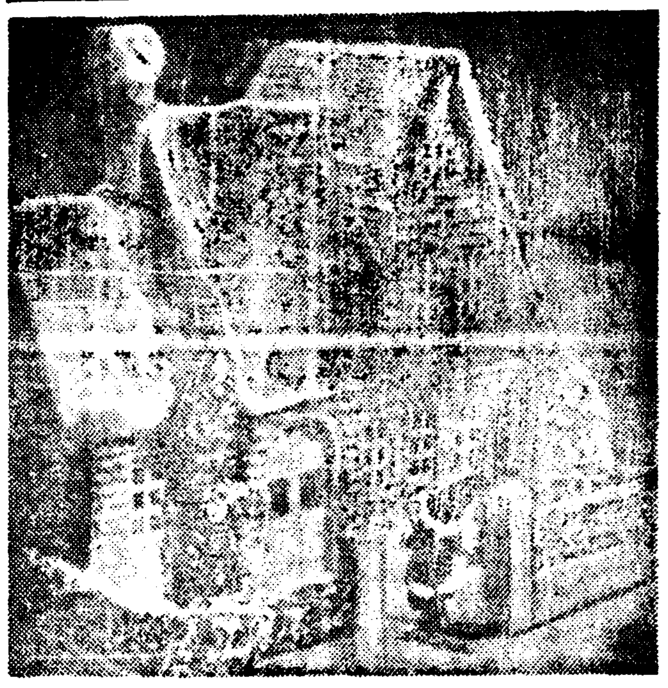
問 전신에 두두러기가 납니다. 낫이면드러가고 밤이면나옵니다. (竹添町 一讀者)

答 중세로 두두러기에 틀림업슴니다. 두두러기는 원인이여러가지나 어쨋든 그사람의 피부가 과민성이기때문입니다. 음식물(물고기 조개고기)때문에 오는수도잇스니 만일 그러타면 그것을 먹지말어야 하겟슴니다 일반적으로 섭사약을 먹어서장안을청결히하고 기생충이잇스면 이것을업새는것이 조흡니다. 그

얼골이붉거

問 얼골이붉고 기름이너무도라 숭합니다 (平北 고민생)

答 얼골이붉은것은 천성이요 어찌할수업겟슴니다 혈색이조흐면 얼골이 창백한것보다 얼마나조슴니까 그리고 기름이너무도라하니 어떠한것인지 잘알수업스나 될수잇스면 지방질(속, 도야지고기가튼것)을 조심먹고 늘소화에 주의하고 『에비오스』가튼소화약을 먹는것이 조흘까합니다 (大學病院皮膚泌尿科 鄭???)



과자로만든문화주택

집겨운 크리스마스가 닥쳐옵니다. 크리스마스·튜리와 산타크로ー스와 집안을 장식하는데 쓰는 은빛 금빛 여러가지 데코레이숀과 미니추어가 점두에 나왓습니다 설탕으로 만든 달콤한것도 잇고 조히로 만든 아름다운것도 잇습니다 적은것으로 칠, 팔십전으로부터 큰것은 조금 빗쌉이다. 사진은 과자로 만든 미니추어입니다. 문화주택의 아조그럴듯한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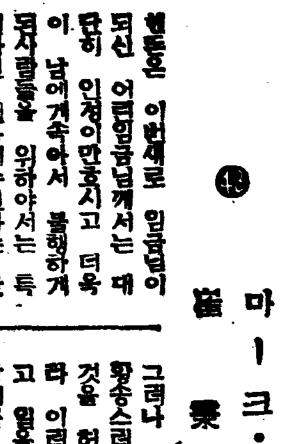
"그림자"

『꽁꽁 숨어라. 차지러간다』 소리가 들립니다. 규석이는 장독뒤에 몰래숨엇습니다. 그러치만 의환이는 당장와서 차저냇습니다. 『누가 가리켜주엇나』 울치 달이가리켜주엇다』

(글쓴사람 배 풍)

왕자와거지 ⑱

마ー크·토웬 作 崔栗和 譯



헨돈은 이번새로 임금님이 되신 어린임금님께서는 대단히 인정이만흐시고 더욱이 남에게속아서 불행하게된사람들을 위하야서는 특별하신 힘을써주신다는 안도류ー스로인의 이야기를 연듯 떠올랏습니다.

『그래 어디, 임금님을맛나뵈고 정당한재판을 행하시사고 애원을해볼까. 一아ー그러나 이거지꼴을한사람이 황송스러운 국왕엽헤나가는 것을 허락해줄가?一그러타 이러케 망서리고잇지말고 일을시작해보자. 나는전장에를 여러번나간장사가아니냐. 그때 그때조흥대로해보자. 자ー가자 런덴으로가자 런덴에가면 아버지와정답게지나든『헌푸레ー마로』경(卿)도 힘을빌러주실것이다.』

하여간 목적지가 정해젓스므로 지금까지 무거웟든 머리가 깨끗해지는듯해서헨돈은 고개를 처들엇습니다 사면을살펴보니 자기고향동리가 머러저갓습니다. 보니깐 국왕도 고개를 폭수그리고 노새가가는바람에 흔들흔들 흔들리면서 무엇인지 깁히 생각을하는듯하엿습니다.

이것을보니깐 헨돈의마음은 또다시 흐렷습니다. 이애는 나서부터지금까지 천대를밧고 괴로움을 당한것외에는 무엇하나 그리워할것이업는 서울도 다시도라가는것을 조와할가? 一그러나 하여간 무러나보자 모르면하고 떼불고갈수도 업서서 헨돈은 말궁비를 붓잡고서 말을물하엿습니다.

『이제 어데로갈가요. 엿주어볼것을 깜박이저버렷습니다. 폐하! 명령을……』

『런던으로가자.』

헨돈은 이돗밧게 대답을 듯고 속으로 몹시 놀나고 또 대연하게 생각하고서는 말궁비를 채첫습니다.

런던까지 가는 동안에는 별반이야기가 업섯습니다. 그러나 런던에 도착하든그날 큰일이 일어낫습니다. 두사람이 런던다리에 이르럿슬때는 이월십구일(二月十九日) 밤열시쯤 되엿습니다.

다리위에는 사람들이 산뎀이가티 모혀서서 서로떼밀고잇는데 누구나 할것업시 술이취한 새빨간 얼골을해서불에 번득어리고 요란스럽게 떠들고 잇섯습니다.

그런데전부터 다리난간에 매달어두엇든 점잔은사람의다혜은해골이 헨돈의팔굼치에 부듸처서 그것이 떠러지자 한사람이 발길에채여서 너머지게되자 압사람의 잔등이를 머리로 콱 바터서그사람이 성을내고 도라다보지도안코 엽헤사람을 따리자 이번에는 그마진사람이 또 엽헤사람을 따리여서그 소동이 이러낫습니다.

내일은 엽국왕의 즉위직(即位式)이 잇스므로 사람들은 오늘밤부터 축하를하느라고 이러케들 모혀잇섯든것입니다. 여러사람들은술들이얼근히 취한판이라 별안간싸홈이시작되고 시비가이러나서 오분도 되지못해서 그근처는 떠리고맛고 욕을하고 떼밀고 그야말로 끌는솟에물과가티 야단법석이 이러낫습니다. 그래서 그동에 헨돈과국왕은 서로떠러지게되야 와글와글 떠드는 사람들틈에 휩쓸려서 서로 행방을 모르게되여 버렷습니다.

三一「톰·칸티」는 어떠케되엿나

이제 이야기는변해서 그후에 톰·칸티는 어떠케되엿슬가? 톰은 날마다 대궐에서 호강으로 지내는것이 점점 자미가 깨가 쏘다저갈분이여서 이세상에서 이처럼 유쾌하고 즐거운곳은도업스리라고 생각하게 될만치되엿습니다.

지금은 모든것이 무섭지도안코 걱정도엽버지고 부끄럽도 사라저버리고 그대신 제법 점잔은국왕의태도를 갓추게되엿습니다.

그러고 놀고십거나 이야기하고 십흘때에는 『에리사베쓰』공주와 『젠·그레ー』공주를 불너다놋코는 놀다가 실증이나면제방으로 돌려보내습니다. 도라갈적에 공주들이 그귀한신분으로 톰의 손등에 입을맛추고가드라도 이제는 놀나는빗이업서지고 당연히 바들것이라고 생각하게되엿습니다.

깨를복글때

깨를 복글때는 흔히한꺼번에 만히너코 복그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한번에 만히너코 복그면 깨가 한쪽은 너무과하게복거저서 타버리고 한쪽은 전연 복기지안흔 생깨가남고하야 조치 못합니다 그뿐만 안이라 고르게 복기게 하기위하야 저까락이나 숫가락으로 돌리면 또닥도닥뛰여서 남비박그로 흘러나가는수가 만습니다 이러기보담 깨를한번에 한두숫가락식너코 복그면 뛰지도안코 고르게 잘복깁니다

시간으로 보더라도 이러케여러번 하는것이 시간경제가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맛도훨신낫게 잘복깁니다

살결을 본바탕부터 허고 어엽뿌게 만들어주는 미안료법이발명되엇다!

美容의醫學

어엽뿐것을 따르며 조화하는것은 누구나 다아 가지고잇는 인성 이오나 그러타고 얼골을 뜨더 고치는수는 업울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분의게도 모도 어엽뿐 륙좋을 밧으이 가지고잇는것이나 그점을말겁지 못하시고 다만 남이하는짓을 따라하실때에는 아무런 투중업는 얼골이 되고 마는것입니다

그러매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남유달리 얼골이 거므분이 남과갓이 깨끗히보이 시려고 분(白粉), 크림, 몰볼올아모리 발느시여서 화장을하심지라도 그분의조종류에따라 발느섯을때에는 조곰 힘것갓이 보이다가도 조금만 지내면 오히려 아니발느신것만 못하게되는분이 얼마나만습니가

·또한 도회지에게신분께서는 혹이 미용원(美容院)에 가시는분도 게시나 살결이 거칠고 떼구나 얼골에 죽은깨, 여드름, 버짐, 기미가 끼여잇는분에게는 아모리신식화장품을 가지고리도 그분이 가지고잇는 천성의 어엽뿜을 발휘치못할것입니다

그리하야 지금까지에 유명무실한 화장품도 만히 생겻스며 또한 미인(美人)으로 만들어준다는 약도 만히 생겻섯스나 그다지 조흔 효과를 엇지 못하엿든것은 지금까지에 여러분이 만흔것을 사용하여보신경험에서 짐작하실줄로 밋습니다

그러므로 어떠케하면 남녀(男女)를물론하고 살결을 본바탕부터 곱게하여주며 히고도 맷그럽게하여서 천성의매력을가지게하는 강력미백소(强力美白素)를 세계각국의 미용의학계에서는 연구를거듭하여왓섯습니다 또한 살결이 어엽뿌고 히게될뿐만아니라 얼골에생긴 여드름, 버짐, 기미, 죽은깨가튼것을 업새는 살균력(殺菌力)이 강한것이라야만 된다는 조건이붓기때문에 여러종류의 약과화장품이 생겻스나 일장일단의 유감이잇섯습니다

그리하야 재래의것의 결점과 불비한점을 모ー도 보충하며 신학설과 실험의화에서 발명된것이『레온洗顔크림』이오니 가정에서 간단히사용하야 어엽뿌게됩니다

활성상태(活性狀態)의 고로이도 硫黃을 保有한 强力美白素『레온세안크림』은 미백살균(美白殺菌) 작용이 강함으로 자택에서 아무염려업시 간단히 사용하야 단시일안에 살결이곱고 빗갈이 히게되며 여드름 죽은깨 버짐과 개기름들느든것이업서저서 어엽빼집니다

치운동안이 닥처오면 바람이 틀고 피부가 주름을 못펴게되는때이오니 얼골의 화장에도일층 주의하셔야 됩니다.

◇처녀시…명랑한신녀성의생기와 청춘의꿈을 어엽뿐얼골에서 찾기위하야

◇가정부인…시부모 남편시종과 가정살님사리에 골몰하시는사이에도 귄엽없는 매력과 애교가 가정을대하오니화장을 안코라도 본바탕부터어엽뿐얼골에 빨갓이 띠워지는우윤은 놀가정을 평화하게하고가정에가 더욱 두터워갈것입니다.

◇식업부인…직업상 허는수업시 매일화장을 하시게되야 분때와 연독(鉛毒)으로 살결이 푸르스름하게 거름분은면동을 배설(排泄)하고 분때에 겨른 피부소생을 청백하게하기위하야

◇잔주름이…만흔분은 중름이 업서지고 화색돋는 말굴망울한 살결이되기위하야

◇햇빗에…거를낫녀활동가들은 화장의뜻보다 살결을보호하고 자외(紫外)를 밧어서두러워진 색소층(色素層)을 업새게하야 타고난 어엽뿐살결로 만들기위하야

어느분이라도조금도 주저마시고 『레온洗顔크림』을사용하시면단시일안에경탄할만이훌륭한효과를어터서윤나는빗갈회색이도는엽름빵끗히잇술에띄워지는우숨과넘치는애교화매력에다시금경대에빗처보일술밋습니다

흥은 모욕랑에 너서목욕하세도 그결로는작용을하지못하게됨으로 아무런 효과가업습니다

活性고로이도유황을 특수피부淸白영양료와가티 약용화장용에성공한 레온洗顔크림은 하로에두번 三四分치료에 효과를어들수 잇습니다

얼골에 여드름 버짐, 기미, 죽은깨분때, 잔주름이 생겨서 고심하시는분이나 빗갈이검거나 햇빛에끄른분 일허버린 청춘을 한탄하시는분은 조금도 주제마시고 사용하시사 일허버렷든 우숨과 매력을 다시 차저주십시요.

『레온세안크림』(レオン洗顔クリーム)은 전도우명한약방 화장품점, 大百貨店에서 팝니다마는매절되엿때에는

東京市神田區小川町西三丁目 株式會社レオン商會 (振替東京六八一番)으로 주문하시면 우세三十錢 전송하시는분에한하야 남어지송료를부담하고 매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정가는 普通瓶一圓四十錢, 德用瓶三圓四十錢이오니 한로밧비 사용하야 깃뿔을어더 주시시요

무대진정

몽지하시는대로 조선국문으로 쓰신가정미안료법이라는 책을 거저드립니다

活性고로이도硫黃이 —어재 조혼가—

활성고로이도유황에대하야 알기쉽게예를들면 유황은지에二三평의 오천도의고열에서일하고계신분이나 그유황온천에서일하고잇는분들의 얼골이나손발을볼때에는 흥로색의화색이도는며그얼미나살결이히기를아십니것입니다

이것은오천속에 적오온것이나『고로이도 狀態』의유황이 어느새인제피부속에 침투되여서 색소표백(漂白)하고 도한피부표면의 살균미화(美化)작용을한까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분들이나 사실에잇서서 그런작용을하는 유황은 고로이도狀態그대로 보존하는수가업스며 도한이무부작용업시 만들기에는 너무도 어려웟으로 여러가지로 고심연구를거듭한결과 처음으로 세게각국의 미용의학게에 자랑하게된活性고로이도硫黃保有의『레온洗顔크림』이대발명된것입니다

특히 이과학적사실(科學的事實)을 설명하기위하야 혼이잇는 보통유황을 끌어서 발나시드가

호루몬으로、생생한살결！ 목化粧에 가장조흔白粉

綜合호루몬을配合한구라부美身衿白粉은 衿化粧의最美를 發揮할뿐아니라、호루몬으로써、살결을생생하고어여뿌게 만듭니다。

구라부美身衿白粉을쓰시면은、白粉下와、白粉作用을兼하엿슴으로全然白粉下가必要치안슴니다。少量으로、바르고、먹음은 勿論、濃淡업시잘먹어特히麗艶한光澤이나고、白粉거칠이나化粧꺼롬이업는第一優秀한衿化粧料입니다。

白粉ヤケ化粧アレせぬ

구라부美身衿白粉은 白粉下도兼備하얏슴으로 絶對로、手荒가必要치안습니다、그러나바르고、먹음이조코 淡化粧料로도最適입니다、또、淡化粧인때는구라부化粧水로調和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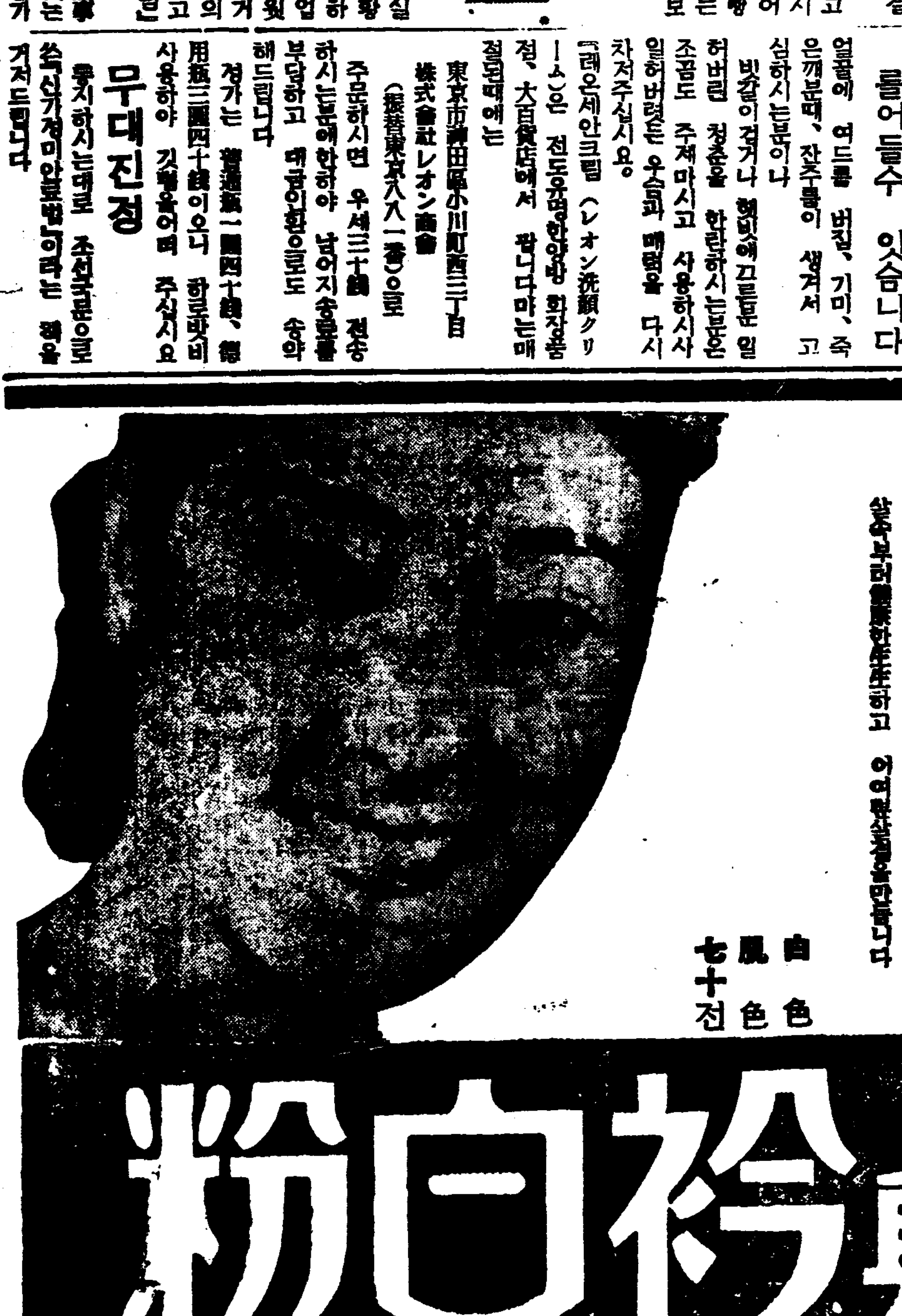
白粉下が絶對にいらぬ

너무化粧하는度數가만흐면 白粉粒子가살결表面에膜을만들고、人體에重要한皮膚의吸收를막는結果、白粉꺼틀、化粧거칠이되나 구라부美身衿白粉에는 그러한염려할必要가업습니다

ホルモンで肌が若返る

구라부美身衿白粉은 綜合호르몬의配合으로、살결에서 營養을吸收하야 漸次로皮下組織을세워젊어짐으로 살결부터健康한生生하고 어여뿐살결을만듭니다

白色 肌色 七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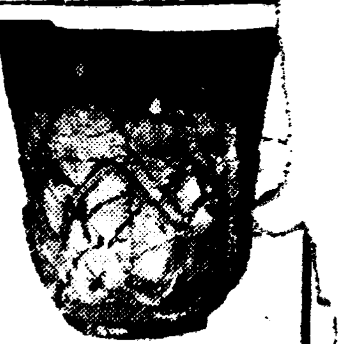


クラブ美身衿白粉

구 라 부

茶故事

湖岩



(十)

學人의茶知識

人蔘湯가튼것을 茶로代用하는풍속에 잇서 一般人이 茶에對한 茶道의意味는 알엇고 그의代用으로서 가지지 못하든것이 事實이다.

그러면 學者나 好事家의 茶에對한知識程度는 어떠햇든가 하면 역시稀薄한이가 업다고 해도 漫言이아닌것갓다.

그야李朝初에는 騎牛子李行가티茶의水味를 잘辨別하든 嗜茶의大家가 업든바아니며 李朝末에도 茶山丁若鏞가티 東茶記를 著述한 朝鮮의大家가 업든바아니나 대체로보아 茶風의衰頹를 따라 茶知識이 缺如하게되엿든것도 否認못할바다.

成俔의慵齋叢話에나타난 騎牛子李行의逸話를 紹介하건대 그會祖桑谷(石成翊)이 騎牛子李行을더부러 追逐할새 一日은 騎牛子가 桑谷을 訪問한고로 桑谷이 그아들에게 命하야 茶를 다리게하더니 茶水가 溢出하야 다른물을 더부엇다. 騎牛子가 맛보고 그에게 하는말이 이茶에 네가 두가지 牛水를 더부엇고나 하엿다. 騎牛子는 어려케水味를 잘分辨하엿든바 忠州達川水로 第一을삼고 金剛山으로 나오는漢江中에 牛重水로 第二를삼고 俗離山의三陀水로 第三을삼다.

桑谷與騎牛子李公相善……李公嘗到公家. 桑谷公茶於公. 李公嘗之曰. 此茶必添他水. 茶水溢. 更添他水. 李公嘗之曰此茶必添二生水. 公能辨水味. 以忠州達川水爲第一. 自金剛山出來. 漢江中之牛重水爲第二. 俗離山之三陀水爲第三.(慵齋叢話)

桑谷成石瑞과 騎牛子李行은 모다 麗末士大夫로 李朝初까지 生存한이만큼 茶風이盛行하든 前朝遺老이엿스니 茶道의達人이 될도그럴듯한일이다 그러나 이는차라리 特例요 一般으로는 李朝學者의 茶知識이 아주淺薄하엿다.

實例로 李睟光은 李朝中期의博識으로 有名하다. 그러나 그의 芝峰類說에 考證한茶說을 말하면 朝鮮茶가 아니고 中國茶를 그대로 가져다가 저근데 지내지 못한다. 그의 記錄에 갈우되 古人의 일은바 雨前茶는 三月中穀雨前에나 흑은 正月中雨水前에 採取한 初生의 嫩葉을茶라고 하엿다. 그는 다시 李青蓮詩의 『香湯首採火前春』이라고한 『火前』은것은 寒食禁火前에採進한것을 指稱함이라고 말하엿고 今日南方諸郡의 雀茶는 智異山에 싱근茶種이라고 말하엿다.

古人所謂雨前茶. 蓋以三月中穀雨前. 茶初生 嫩葉爲佳. 或言正月中雨水前也. 李青賢詩. 香湯首採火前春. 按火前者採造於寒食禁火前也. 新羅興德王時 使臣自唐得茶種來. 命植智異山. 今南方諸郡產茶乃其時所種云.(芝峰類說)

雨前茶와火前茶는 모다中國南方의茶採取하는 時期를 말하는것이오 朝鮮南方의 茶採取는 아니다. 그가 最後에 『今南方諸郡產茶(云)』이라고 朝鮮南方의產茶를 말하면서도 그採取의時期는 言及하지 아니하엿으며 茶에 對한 그의 實際知識의 貧弱을 推察할것이다.

그다음에는 英宗때 實學者인李瀷의星湖僿說에 나타난 茶故事이다. 그는 茶食을 說明하야 宋代大小團茶의 餘라고 하엿고 도團茶를 說明하야 末茶를 茶祭中에 두고 湯水를 부고 茶筅으로 저든다고 하엿다. 그러나 茶食으로써 禮間의 餅餌라고한은 그意味를 잘알수업스며 도團茶의 方法도 그當時事實을 그대로 적은것이겟스나 네날그것과는크게다르다

祀與有茶食. 用米麵和蜜. 木臣中取團餅. 人不解其名義. 余謂此宋朝大小團龍之餘也. 茶末……家禮用點茶. 則以茶末. 投之盞中. 沃以湯水. 攪以茶筅也. ……(星湖僿說食物門)

星湖의茶食說明은 茶에對해서만은 오히려 이러하엿다 그런에는 正祖때四家의一人인 柳得恭의 京都雜志에 나타난 茶故事이다. 그는『茶非士產』이므로 燕京에서 購入한다 하엿고 휴은雀舌茶과 生薑茶를 다고한은 무슨까닭이며 또雀舌茶는 무슨意味인가. 南地의產茶가 잇거든 土茶가 업다고하은 無茶의 茶種을 대신한 博學으로도 이러타면 그他는 무를바이니다.

茶非士產. 買於燕市. 或代以雀舌茶……(京都雜志卷一茶煙)

哲學의此岸에서서 (5)

金基錫

行動

우리들은 어떤論議속에서 다음과가튼말들을 發見한다『哲學한다』、『科學한다』、『道德한다』또는『藝術한다』라는 이런말들을이 씌여지고 도도라보아진다는것은 그자신한개조그만일이면서도 그것이

—觀— 念에대한現實、思惟에대한行動、理論에대한實踐을 高調하고잇는 다른한개의 動向과아울러 생각할때 우리들은 이런言表들을 通하야 現代思潮의 動向또는流床가튼것을 어느程度까지 헤아릴수잇다고보여진다.

運動의誕辭、行動의誕辭. 이한가거지間에 휩쓰이기전에 우리들은 運動또는行動의 構造를 기피反省해야할것이아닐가.

우리들이 무엇을 한다고 할때 이 한다는것은 무엇인가. 생각한다、움직인다、만든다、거러간다. 이것들이 모도『한다』이나、어떠한다는 어떤 構造를 가지는것인가.『한다』는 作用、過程가튼意味를 가지는데서、단순한『잇다』로부터 구별된다.『잇다』가 存在를 意味한다고 보면『한다』는 生成 또는 運動을 意味한다고 보아야한다. 生成과運動. 이것은 분명히 一切의存在가 그속에서 구니는 存在자신의 久遠한 運動가튼것이아닐가.

그런데 우리들의 行動이란 무릇 한개의 運動으로서의 意味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運動에 그치지 안코 자기를

—行— 動으로限定하는어떤徵表가 업서서는 안된다. 運動으로서의 行動과 行動으로서의 行動은 언제나 運動이되고 또되어야한다. 그러타고해서 運動이라고하야 모도가 行動이되고 또되어야하는법은업다. 運動속에行動인 運動이잇고 行動아닌運動이잇다고하면 이行動아닌運動이란 어떤것이되어야하는가.

비喩이뭇고 나무닙이 떠러질때 거기에는 運動이나타난다. 비가나리고 물이흐를때 거기에는 運動이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들이 行動이라고 부르지는안는다. 이제 누가 하나 이떠러지는닙을 쓰러모흐고 이흐르는물을 매마른 논이나바테 회여너헛다고하라. 이싸히는닙에 뭐지는 물에잇서서 우리들은어느意味의 行動을 그속에서읫은다. 行動은 결국 어떤 主體의 行動이요 이 主體의 志向이려서 遂行되는 어느 意味의 目的的인 運動이 아닐가. 行動의 主體는 이 行動에 대한 意欲判斷및 記憶를 가지지안허서는 안된다.

行動은 본래

—主— 體的行動이면서자기를客體的運動으로부터 구별한다. 그런데 이客體로서의 自然에 마조서는것이 主體로서의 人間임을 볼때 우리들은 運動의 自然性에대한 行動의 人間性을 외운다. 人間이 가지는 目的的運動. 이것을 모조리 行動이라고 불러서 어떨가. 人間은 무론 自然의 世界속에 차혀잇고 또 그自身 한개의 自然이 되기도한다. 그러나 人間이 自然이면서도 自然에서 버서나 도리혀 自然과 마조서는데서 진정한 意味의 歷史社會및文化가 形成또는持續된다.

人間이자기를 自然으로부터구별하야내이는 性格이 곳 主體가 자기를 客體로부터 구별하야내이는性格 또는 行動이 자기를 運動으로부터 구별하야내이는性格이된다. 人間이 자기를 自然으로부터 구별하야내이는性格 이것은 人間만이지니고 自然이가지지못한 한개새로운 性格이되어야한다 人間에게서만차즐수잇고 自然에잇서서는 만날길이업는 한개새로운性格이되어야한다.

人間은

—自— 然이가지지못한 얼을 가지고잇다. 무엇을 人間이가지고 自然이가지지못한 이것은 분명히 理性또는 思惟가아닐가. 사람들로부터 觀念論에도라간다는 批難을 듯는것이 두려워 자기의思索에 忠實치못해서는 안된다.

돌이언덕아래로 굴어떠러지는일이나 물에빠진사람을 건저내이는일이 나는 그것이 物理學的運動인한에서 하나가다르는하나로부터 구별되는것은아니다. 그러나 저것이 단순한運動임에反하야 이편이 자기를 行動으로主張하기에 이르는것은 전연히 그속에 그사람의意欲 意識가튼것이 드러잇는때문이아닐가. 行動이 理性과혜여저서 措定되는것이아니고 도리혀 理性또는思惟에얼매이면서 비로소 자기를단순한運動및殺伐에서 救援한다.

紀行 北◇陸◇橫◇斷◇記 ⑤

維也納에서 韓興洙

O兄! 朝鮮의 所謂知識人들은 이蒙古勞働者들이 朝鮮을 아는 程度로 『蒙古』를 研究해본일이 잇는가 나는 머리를 숙이고故土를 다시한번 回顧하여보앗읍니다

今日의 『몽골』을 遊牧未文明人으로 알어서는 잘못이외다 外國人『저널리스트』가 쓴 蒙古事情에 關한 虛荒한 論文이 雜誌에 紹介된것을 고지식하게도 다시 朝鮮말로 飜譯紹介한 新聞紙를나는 朝鮮서 본일이잇습니다

이튼날아침에 우리汽車는『옴스크』에 到着되엿습니다 여기서 蒙古사람들은 모두내립니다『바드라』君과도 作別하게되엿습니다 冊에다 住所를써주면서 便紙해달라고 합니다

옴스크!! 여기는 옛날『도스도웹스키』가 流刑바덧와 잇든곳이라고 宋女史가 가르처줍니다 人口十五萬이나되는 큰 都市인데 멀리로 白色의 高層建物들이 보입니다 驛構內에는 無數한 『트랙터』와『콤바인』이잇읍니다 모두 地方農場으로 分配될것들입니다.

× ×

二十八日午後! 來日은『모스크바』到着이라고『크루』를老人이 面刀를 햇읍니다. 그러나 그모양의 『랑사루리수염』만은 如前히 남어잇읍니다.

『알렉산다、잔늙은』 새옷을 가러입엇고 將校『니콜라이』도 長靴를 닥거신엇읍니다. 來日아츰에 到着할것을 벌서부터 서둘읍니다.

집들은 벌서다 收拾해노앗읍니다. 우리車안은 새로운 緊張과 興奮으로 찻읍니다 나는모스크바에 내릴 資格이업는 사람이건만 어째그런지 내입 準備를 해야만될것가탓읍니다.

모스크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러케 새여나옵니다. 우리 車內의 사람들은 모두『모스크바』가 目的地이니까 그러겟스나 이곳사람들이『모스크바』를 憧憬하는 心理는 우리로서는 想像도 하지못할만큼 强烈합니다.

나는 몃사람보고 『너는 모스크바를 조와하느냐』고 무러보앗읍니다 首都이니까 조타말도아닙니다 華麗해서 조흔것도아니랍니다 『모스크바』이니까 그저 조탑니다.

『모스크바』人이 아니라도 蘇聯邦人이면 누구든지 『모스크바』에 到着하자면 아직도 열두時間以上은 더 잇서야되는데 사람들은 벌서부터 서둘읍니다. 男女老幼할거번에 興奮되여잇습니다.

저녁때우리는 食堂車로 몰려갓읍니다 벌서座席은 半以上찻읍니다 조곰잇다가 食堂은 二三等客으로 滿員이되고말엇읍니다 우리『니콜라이』『알렉산다·잔』宋女史、나는 한食卓을占領할수잇섯읍니다 그루르를老人도 오날밤은 食堂에나타낫읍니다. 그外에도 平素에 나오지안튼손님들이 만읍니다 누구나 모스크바到着前夜의 祝賀宴으로 알고잇는듯 먹고마시고들엇읍니다 宋女史도 술을잘먹엇읍니다 나는麥酒를먹엇읍니다 軍人들은모두 大飮이지 니콜라이는 蒜한잔을『원드카』를 限이업시 먹엇읍니다 食卓마다 『우라-』『우라-』歡呼聲과 爆笑로震動합니다.

나도 이雰圍氣에 醉한듯 흥분된듯 따라서 함부로웃고 떠들고 떠들고웃엇읍니다. 그러나 來日아침모스크바에到着되는 나의存在를생각하고 나의마음은 한구석은 쓸쓸해집니다.

알레세이君도 오날밤은 醉한모양으로 어수룩하게도상쾌하게굽니다 애는 기롭이 번질하게흥읍니다 飮食그릇 나르는 動作도危殆롭습니다.

나는 이밤이 길기를 바랏스나 조롭과 醉氣로 不可不 寢台속으로 기어들어가지 안흘수업게되엿습니다. 複道에서는 如前하게 웃고떠듭니다. 재법아름다운 女子의 목소리도 석기어 合唱이 들려옵니다.

二十九日六時 우리列車는 시베리야方面到着驛 왁살(大停車場、小停車場은 스탄치온이라고 합니다)야로슬라울스키(北部驛)에到着되엇습니다.(歐洲方面出發驛은 왁살白露西亞라고해서西部驛이외다)

이停車場에서 우리들은 서로 作別하고 片紙하기를 서로約束햇읍니다. 宋女史夫君이 마중나왓읍니다. 나를 가리거자고 졸랏스나 나는구지辭讓하엿읍니다. 젊은 夫婦가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내가 부려가는것은 싱겁게 생각되엇읍니다. 讀賣新聞飛行士一行도 무어라고하는 호텔로 들어갓읍니다. 나는 다시 車에올라서 西部驛까지 왓읍니다. 여기에서 나린 乘客은 나 한사람뿐이외다. 내가 此驛에서 나리지안흔 理由는 出發驛을 잘알어두어야 도라다니다가도 차저올수가잇슬러이니 西部驛까지와서나리라는 유진君의고취에 依함이외다.

(完)

一漢詩一

題重陽

押香

桐岡 考選

佳作二之三

平壤府將軍里一一ノ四 崔膺善

四時嘉節最重陽
餻棗囊萸興味長
使阻千年誰載酒
臺高九日客望鄉
鏡生頭白霜侵鬢
籬摘花黃露挹香
莫效古人仍落帽
秋風滿[illegible]更堪傷

조선어표준말모음 (41)

둘재、비슷한말(近似語)

말	뜻
얼굴	顔
낯	面
얽음뱅이	痘痕人
얽둑배기	多痘人
얽음뱅이	以下各下
얽둑배기	
얽음얽음	痘痕貌
얽둑얽둑	同粗點貌
얽족얽족	同密集貌
얽적얽적	同疎大貌
얼벅얼벅	同深大貌
얽숭얽숭	同散點貌
얽음얽음	以下各小
얽둑얽둑	
얽족얽족	
얽작얽작	
얽바얽바	
얽숭얽숭	
얼러맞추다	虛構瞞着
걸맞추다	表面善遇
얼렁얼렁	巧妙誘惑貌
알랑알랑	同小
얼렁뚱땅	同決斷的
얼마쯤	幾何程度
얼마나	果幾何
얼마만큼	幾何限界
얼찌지근하다	若干辛重感
얼근하다	
얼얼하다	過度辛重感
얼씨구	歡喜聲
얼싸	同促
얼씬없다	無影形(形)
얼씬아니하다	不現影(動)
어렴치하다	記憶不明確
어렴풋하다	不明確
아렴치하다	以下各小
아렴풋하다	
어른거리다	朦見
아른거리다	同小
어른어른	朦見貌、放光貌
아른아른	同小、同小
어롱어롱	不明確
아롱아롱	同小
어물어물	言語模糊
어물쭈물	同術策的
어리광	仿幼貌
응석	願愛貌
어린애	幼兒
어린것	同愛稱、賤稱
어릿어릿	言動無氣力貌
아릿아릿	同小
엇가다	進行違
엇나가다	方向違
엇먹다	錯違
엇다	違
어썩	急嚙音
으썩	同强勢
아싹	同小
으쩍	以下各重
아짝	
어슷비슷하다	狀態參差
어금지금하다	程度參差
엉금엉금	匍匐貌
엉금엉금	同重
앙금앙금	以下各小
앙금앙금	
엉너리치다	買歡心
얼레발치다	同小與
엉터리	根據
터무니	土臺
엉얼엉얼	怨恨聲
웅얼웅얼	同衆
앙알앙알	同小
앙잘앙잘	同細
옹알옹알	沈吟聲
웅절웅절	同小
옹잘옹잘	以下各細
어찌	何、豈
어떻게	如何樣
어쩔하다	默然呆然
어뜩하다	同刹那的
아찔하다	以下各小
아뜩하다	
어지간하다	相當程度
어연간하다	近可程度
우연만하다	稍近及程度
어질다	實
착하다	善
어질어질	眩暈
어찔어찔	同忽作的
아질아질	以下各小
아찔아찔	
어짓바르다	少餘少不足
어중되다	長短不適
어차어피	於此於彼
이렇든지저렇든지	不拘彼此
엎다	覆
엎지르다	覆棄液物
엎치다	轉覆
엎드리지다	仆伏
엎어지다	顚覆
엎어누르다	覆壓
엎누르다	同促
어여차	合力聲
어기여차	同詠歎
어여싸	同促
에구	哀痛聲
애고	同小
에구머니	驚叫聲
애고머니	同小
에끄나	同急
애끄나	
에워싸다	包圍
에우다	同
엘다	
얇다	
얇다랗다	同甚
얇파하다	同弱
열재	有穗
챗열	穗
열흘	十日
열흘날	月中第十日
여러번	屢回
여러차례	同次序的
누누이	同重複的
여러분	諸位
제군	諸君
여름타다	夏弱
더위타다	暑弱
여리다	脆弱
야리다	同小
여무지다	堅實
야무지다	同小
오달지다	充實
여위다	瘦
야위다	同小
옛적	古代
이전	過去
옥다	內曲
오긋하다	稍內曲
욱다	以下各大
우긋하다	
온갖	各種
여러가지	諸種
오냐	應答
옳지	是認
오	首肯
오늘	今日
오늘날	而今
오동통하다	厚短
우둥퉁하다	同大
올	絲條
오라기	絲斷片
오리	細切長片
옭매다	纏結
옭아매다	纏結

讀者交歡室

▲昭八年度 岡山縣岡山市岡北中學校를 卒業하신 平壤嚴仁錫君住所를좀傳해주오
海州邑東榮町六 李炳玉

▲有利하고누구든지 能히할수잇는古本屋을事情에依하야 急히讓渡하고자하오니 有意하신분은 左記場所로 來談하심을바람니다
京城府寬勳町一五五 昌文堂書店

▲現在京城市內黑質白章(大蛇名) 販賣專門所를아시거든左記住所或은 本社社交室欄을 通하여下敎하여주시면甚히 謝하겟나이다
釜山府海望町 海望理髮館

▲生은當年廿歲에 男兒이온대

▲特米自動車運轉手를 希望하고 先助手로 (家勢가넉넉지못하므로) 採用되야 實地의 經驗으로써 熟習하고하오니 助手入用하시는 분이계시거든 同情하시와 朝鮮日報社交歡室을 利用하시여 通知하시여주시옵伏望
[illegible] 崔生

▲本報十月二十日本欄에 小說書籍을 讓渡하신다는 困窮生에게 寄贈한 本人이 讓渡하시는冊中尹白南作燈火가有意하오니 代價를 卽時通知하시요
京城府授恩町九一 朴[illegible]

▲求下宿人 勤直한學生二人을 求함. 他宿人無. 勉學의指導도與함 願宿生은 卽時應接室로住所氏名을 明記하야通知하시오
(S、O、S生)

▲崔三順氏에게 奉天에서들아온貴이여 두번이나玉簡을 바덧것만 그대의住所를몰나 回答을 못하엿나이다 이欄을보시거든 卽時住所를아르켜주시요
市內橋南町 朴鍾科

▲멀리讀者諸賢께못나이다 生이世界的으로 偉大한學者 發明家、英雄、文豪等의 肖像畵나或은 寫眞等을求하오니 販賣所나 製作所를 아시느니가 게시면 社交室을 通하여서나 或은左記住所로 알려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鎭南浦府後浦里三五 鄭世榮

▲求宿人은 左記住所로 來訪하시요 淸潔한方一間半이 有합니다 會社銀行員官吏、學生男女不問합니다
京城禮智町二三四의二 李億商

▲滿天下讀者諸氏여 生이左記書籍을 廉價로 讓渡하겟스니左記處所로 通知하시요。再生 永遠의微笑 旋風時代 海王星(上下) 人形의家 西部戰線조용하다
平北古邑驛前葛峴洞 白禮煜

▲十一月十三日 社交室을通하야 平山郡金岩白筆岱里 申香女는 至今同郡 麟山 白麒麟里申栗均方에 留하오니 그리로問議하시요
南川驛前申道均方 朴佳人

▲府內에『피아노아코-디온』敎授하신분이 잇스면 社交室을通하야 알려주시오
P·H·生

▲讀者諸賢中에 左記漢醫書를 所用되오니 讓渡하실분이 게시오면 左記住所로 價格을通知하여주십시요
記
一、靑囊訣全四帙 一、最新鍼灸按摩學講義 一、應用自在通俗漢醫學原論 一、原本諸版方藥合編 一、醫門寶鑑
咸南咸興府城川町二丁目三九 梁宗鉉

▲讀者諸氏에게! 生의文藝書籍을 左記價格에依하야 讓渡코저하오니 有意諸氏는 左記住所로 照亮하시압……
李光洙著『無情』 一圓六十錢
同 『開拓者』 七十六錢
同 『麻衣太子』 七十六錢
同 『有情』 六十六錢
方仁根著『女學生』 九十一錢
樂春園著『殿都의香氣』 九十一錢
狼林山人著『沙漠의꽃』 三十六錢
鷺影著『幻戲』 九十二錢
(送料는生이負擔함)
平北龍岩浦 西鳴漢人 生

▲今年九月以前 本報所載의 右記分을 購讀하여주시는분에게 各其該當의 [illegible]
一、李光洙『愛慾의彼岸』(自一回至十八回分)
一、徐恒錫『白頭山探險記』(自一回至五八回分)
平元線新倉市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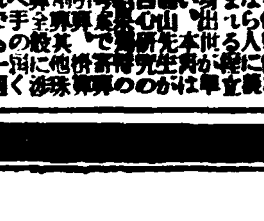
新刊紹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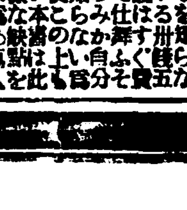
▲農民生活 十二月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三九 農民生活社 振替京城四八五二番 定價十錢

▲城大文學 第五輯(月次)小說 教師、赤熊、蹴られね時間、丘の上の生活者 詩リデル デスデムの夜、思い出、等 發行所 京城府[illegible]二二七 文學部 定價三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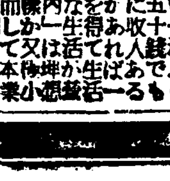
▲金融組合 [illegible] パンフレット 第十號 發行所 東京市[illegible] 振替東京五二三八〇番 定價十錢 送料四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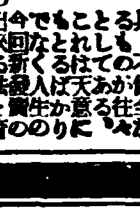
▲復活[illegible] 十二月號 發行所 [illegible]城府[illegible]五丁目七九 振替京城一一八七〇番 [illegible]


七日で上手となる 珠算獨習秘訣 ▼獨學で上達の秘密公開!
現代出版社



一見卽座に役に立つ 新版書式全書 特價一圓
大阪市東淀川區西町 現代出版社 振替大阪五六〇一四


▼誰にも出來る! ●金儲け
定價九十六錢
大阪市東淀川區西町 現代出版社 振替大阪五六〇一四


百萬人の子寶 子の出來ない奧樣の大福音
大阪市東淀川區西町 現代出版社 振替大阪五六〇一四

昭和の常識
藥學ヤマスクの習慣は抵抗力を失はせる、風邪の豫防法は運動、睡眠、營養の三つ

仁丹은꼭必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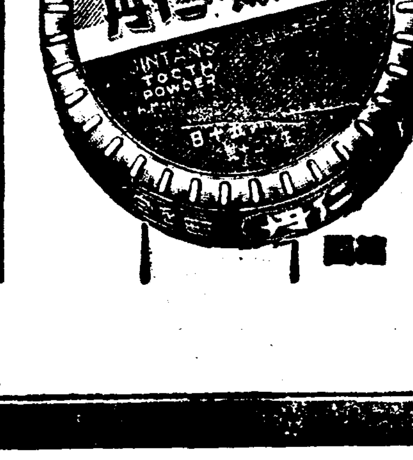
……이것은 새삼스럽게 말하지안하도 여러분이 恒常 實行하실것입니다。 그러치만이것만은最近의 仁丹이 호루몬及 비타민·人蔘·사후랑等의 新成分을 加하야 益益 藥質을 充實히하고 從來보다도 一層必要한藥이되여잇는것만은、特히 말슴하여 드 니다

麝香とガラナのホルモン主劑 麝香仁丹 金銀粒取交ぜ二百粒入 五拾錢

新原料로 淸掃力、殺菌力을 增加한 半練仁丹齒磨

廿錢一罐마다 仁丹十錢包를 全國의各店卽席에서 進呈

그리고 抽籤으로 大景品이當籤되는 럭키-券添附



演藝

劇研第十三回 公演에際하야 (上)

李軒求

「외로운사람」과 그作者

「하웁트만」「빌드라크」의 아울러 우리의記憶에 속에 아즉도 生生하고있다。그 자 이作品「獨逸」로서「運命은 順從하는者를 태여가지고가며 拒逆하는者를 이끌어가지고간다」는 「獨逸」의 金言을 들어 作者의 藝術觀 人生觀의 一端을 提示하엿다 이運命이란말은 各自의 解釋에따라 그意味하는바가 서로달을것이어니와 일즉 世界大戰의 悲劇的文化 歷史를 創造해가고 破壞해가는 그어떤 威大한힘、이힘을 가르처 運命이라할것이어다 그러한運命앞에잇서서 어人間이란한存在가얼마나 微弱하고 悲慘하고도 無力한가를 痛感하데서어든 體驗의 結論이다。

일즉 「빌드라크」는 「쟈즈울·로맹」「듀아멜」「아르코스」等 오늘 佛文壇의 權威인 그들과 더부러 一九〇三四歲의 靑年들끼리 「修道院派」라는 詩人部落을 建設하야 活動하엿다。때는 一九〇六年ー 至今부터 三十年前일이다 그러나 그가 世界大戰以後 一九二〇年代부터 戲曲創作에 主力하야 「商船테나시티」「巡禮」「외로운사람」「미쉘·오클레ー르」等의 戲曲을 發表하야 世界大戰以後 簇生한 새로운 佛蘭西演劇運動에 對하야 獨自의 境地를 開拓하엿다

獨逸表現派劇이 狂燥와 叫喚과 混沌으로서 極度의 沈痛을 舞臺化 戲曲化하는 그時期에잇서서 佛蘭西의 새로운 劇作家들은 冷滅하는 現實의 慘酷을 凝視하면서 그우에 生存하는 人間生活의 內面을 穿鑿하는것이엿다 더욱 일드라크의 戲曲은 戲曲의 지나치는 演劇味라거나 演劇構成의 技巧라는것을 그러케 重大視하고 그에 努力하지는 안엇다。그러다고 戲曲上演性을 無視한 單純한 넑음으로서 足하는 文學的作品은 勿論 아니다。그러나 무엇보담도 重要한것은 戲曲속에 表現될 人間生活의 산呼吸、不規則的인 脈搏、한테 지침허진 人間精神의 詩的暗示그것이다。

그러므로 지나치는 現實에 對한 反逆이라거나 誇張이거나 絕望的苦悶을 思想的 社會時評的 다시말해 加減해나가는것이 아니요 마치 어두어지는 밤의 冷寂속에 꼬엽는 孤寂을 느끼면서도 嚴하게 그러나 꾸준히 피여오르는 火焰을 體驗하야 沈潛하는 한포ー즈」이것이 「빌드라크」의 藝術에對한 見解의 一面인同時 더욱 이번 劇研서 上演하는 「외로운사람」에잇서서는 이情緖 이雰圍氣를 如實히 浸潤식히고、淨化식힌作品이라고할것이다。

「루ー생」이라는 壯年의살라리맨 이사람이 이戲曲의主人公이다。아모런事業의野心이라거나生에對한 굿센執着도업시 안해와 더부러 出勤時間以外에는 아모의訪問도 往訪도업시 男便은 冊을가지고씨름하고 안해는 男便엽페서 編物이나하고지내며 해가 긴때면 둘이서 散步하는것外에 生活의 屈曲이라고는업는 巴里郊外에 떠러저사는사람、이한사람의性格에對해서 作者는 그를 무슨 厭世的哲學的인 畸形的存在로取扱하는것이아니다 가장正常的이면서도 그어듸지 通俗에서기는 社交性을 發揮할줄모르는 人間ー남의 生活範圍에 한아의例外的存在로 問題視되지 안는 동떠러저사는사람이다、언제나 그는 그들同僚속에 석기기를 그려케渴望하면서도 그를實行못하는그속에 이主人公의 性格的悲劇이잇다 自己에게 말한마듸라도 親切하게해주면 어리둥절해서 곳그를바더드리지못하는 實로鈍感아닌 懷疑에서 망서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作品에서 이人間을 다만 輕蔑하기에만 끈칠수업는 그어떤人間心理의微妙를 가슴에 늣긴다。作家로서의 誇張도곳곳이도업는 單純한 그러면서도洗鍊된 獨創性에 가슴깁히 따뜻에 愛情을 가지게하는 그人間性에 感激될뿐이다。

第十三回 劇藝術研究會公演

時日 十二月二十日부터 三日間(午后七時) (廿一日은 晝夜晝間은 午後一時半부터)

場所 市內 府民館大講堂

入場料 一般 五十錢·學生四十錢·團體(三十人以上 學生團體)三十錢

◇信仰과故鄕 ―三幕― 칼·헬作 徐恒錫譯

◇외로운사람 ―一幕― 빌드락作 李軒求譯

…出演…

李峰 申左賢 崔辰男 孟晩植 尹芳一 申泰善

朱在善 金福鎭 朴亨淑 金映玉 金一英 安霙柔

朴齊通 金蓮乙 鄭龍瑞 金南鵑

李眞 金炳秀 李春植 沈玉庚

演出 柳致眞 李龍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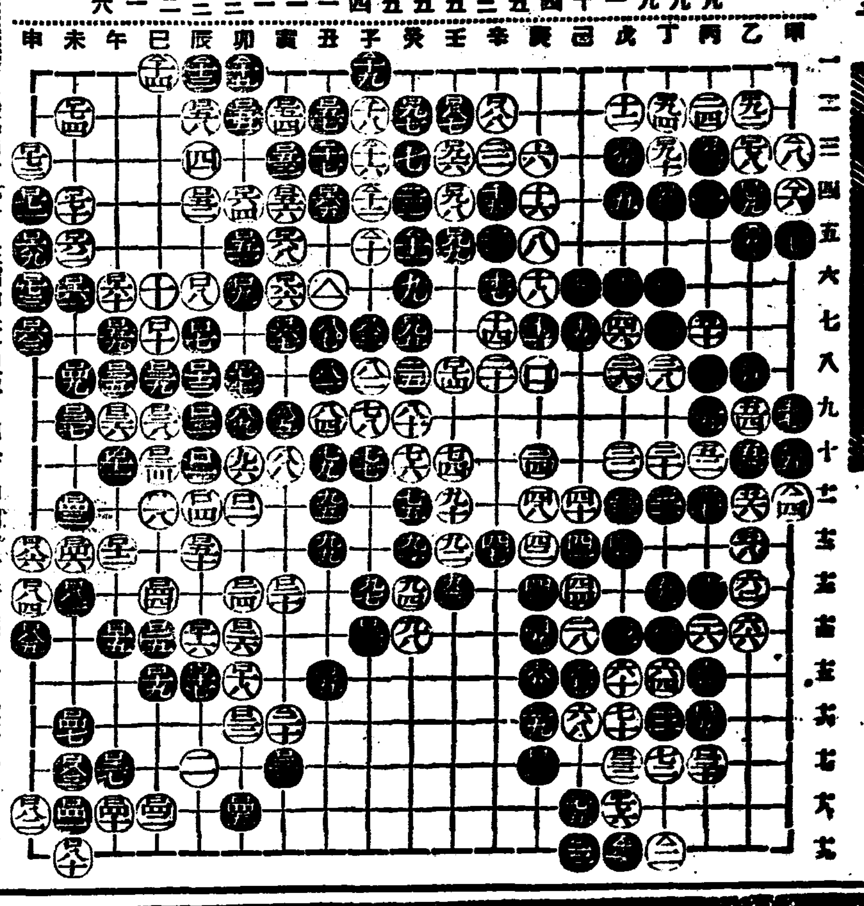
裝置 鄭玄雄 李相男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圍碁對局譜 ―13―

本社主催

白 ○○○ 黑 ○○○



●一〇一 戊의十九 ○一〇二 丁의十九 ●一〇三 己의十九 ○一〇四 甲의十一 ●一〇五 甲의十 ○一〇六 甲의四 ●一〇七 甲의五 ○一〇八 甲의三 ●一〇九 乙의五 ○一一〇 子의五 ●一一一 癸의五 ○一一二 子의四 ●一一三 辰의一 ○一一四 巳의一 ●一一五 卯의一 ○一一六 子의三 ●一一七 丑의三 ○一一八 子의二 ●一一九 子의一 ○一二〇 寅의十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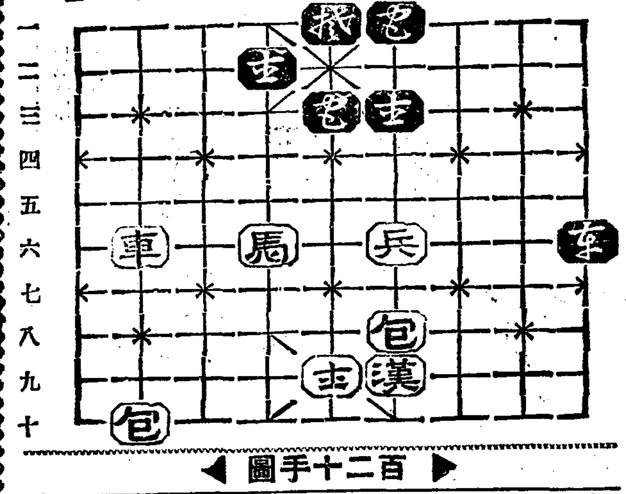
觀戰者談 黑戊의十九가 三端効果가잇고 白은 甲의十一로 應手를 要하고 甲의四로除함이 亦是三端効果다 別無神奇나 第次난 한번 搖想해볼일

將棋名手對局譜(二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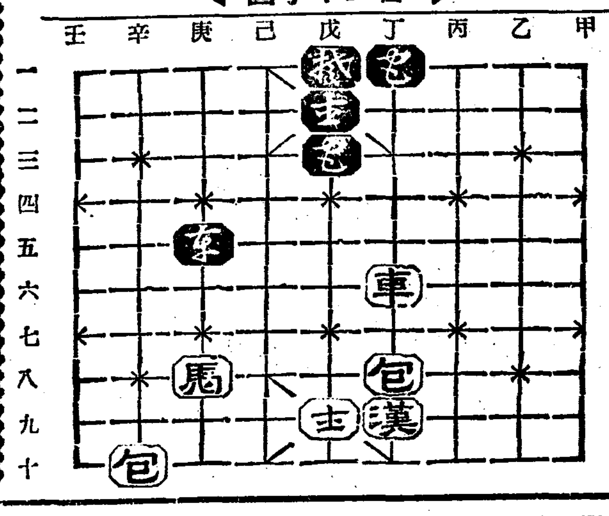
本社主催

兵一減 漢先手 李在鳳 對 李命輝

◀百十手圖▶



◀百二十手圖▶



丁八包―丁三打士 甲六車―丁六呼將打兵 丁三包―丁八 己二包―戊二 己六馬―庚八

丁六包―丁五 辛六車―庚六 丁五包―戊五 庚六車―丁六 戊五包―庚五

라디오

二十一日(月曜)

◇午後六時 兒童劇『속인다』 京城放送兒童劇研究會 指揮 南雲

◇同六時二六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許然

◇同七時卅分 講演 金融界『二年의回顧』(二) 商銀頭取 朴榮喆

◇同八時 小春香歌外 一、小春香歌 二、平壤歌 三、달거리 四、제비가 鍾英順 金眞紅

◇同八時卅分 絃樂四重奏 一、絃樂四重奏曲D長調…모차르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모데라ー도 第二樂章 안단테 二、絃樂四重奏曲D長調…모ー차르트作曲 三、엔젤스·가브리엘…포ー슨編曲 第一빠이올린 洪蘭波 第二빠이올린 安習敎 첼로 崔虎永

◇同九時 唱劇調 林小香 金泰潤

二十二日(火曜)

◇午後〇時五分 映畵이야기『레몬의燈臺守』朴昌遠

◇同一時一五分 趣味講演『冬至이야기』司空桓

◇同六時(平) 하ー모니카合奏 一、채찍과拍車…알펜作曲 二、雙頭鷲下…빠그너ー作曲 三、적은支那人…스미스作曲 四、키쓰멧트(四重奏)…맘키ー作曲 五、觀兵式行進曲…古基作曲 六、數島行進曲…瀬君作曲 七、軍艦行進曲…作曲 平壤少年센니하ー모니카밴드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指揮 李貞植

◇同六時三〇分(平) 經典解說 蔡弼近

◇同七時三〇分 講演 一年의回顧(三) 敎育界 世專校長 吳兢善

◇同八時 (大)混聲合唱 코ー라 나니와 오페렛타·로ー즈·마리ー……헬벨트·스트지ー트 루돌프·플틀 共同作曲 若井平太譯 獨唱 三浦節子 同 上野經子 피아노獨奏 加藤直四郞 指揮 押橋靜雄

◇同八時三〇分(平) 山川草木外 一、늘양 二、사거리 三、중거리 四、山川草木 五、開城난봉가 張明花 洪龍珠

◇同九時 歌詞 一、黃雞詞 二、漁夫詞 文明仙 盧鼎桃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東)詩吟

◇同二時(城)講座

◇同六時(東)物語

◇同六時二五分(東)講演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八時(大)混聲合唱

◇同八時二〇分(城)獨唱

◇同八時五〇分(東)라듸오드라마

★曆★

十二月廿二日(火) 陰曆丙子十一月大(初九日) 戊寅 土·室

▲冬至二十二日(舊初九日) ●裁衣動土上樑辰時納財에 宜함

お歳暮ならどりこのを!

贈答用化粧函 一本入 二本入 三本入 (各種) 店にあり

한장의「게ー스」로써누구에게든지맛는愛用者에게「올-써ー비스」

all Service

滿鮮地方愛用者優待

抽籤으로 二重으로賞品을탄다

課題

左記文中세 ○속에 文字를너으면何有名化粧品의일홈이될터 무엇일가?

强力乳化裝置コロイド·ミル使用의超微粒子〇〇〇タリーム

應募하는方法

一、헤치마크림의 外箱裏面에 (헤치마코롱의 外箱其他의 用紙는 無效)
1 課題의答
2 이廣告를보신新聞名
3 特賞及一等賞品中希望하시는것을一點씩
4 당신의住所及姓名을똑똑히써서
(가) 近處헤치마크림販賣店에 委託하시오
(나) 또는 左記住所로直接郵送하시되 一人이몃장이든지 應募하여도조흠(但 直接郵送인때는封書하야 裏紙에『滿鮮懸賞』이라朱書하고 十五厘(四錢)마다 一錢切手貼付하되 郵稅不足分은 接受치안흠)
東京市日本橋區橫山町六 天野源七商店滿鮮懸賞係

二、應募와同時에 抽籤券及總當籤賞品을送呈하고 締切後 따서 嚴正抽籤하야 各各規定한 二重賞品을送贈함

三、締切 昭和十二年一月三十一日

總當籤景品(應募者全部) 抜れ毛止め兼用櫛 一本宛

다시抽籤으로二重賞品

特等 一〇〇名樣 (左の中御希望の品一點)
一、新柄小紋錦紗一反宛百名
二、輸入友禪羽二重帶地一本宛百名
三、銘紋錦紗一反宛百名
四、純毛毛布(敷用)一枚宛百名
五、本ラクダショール一枚宛百名
六、防寒用コート地一反宛百名
七、銀製装身具揃入一式宛百名
八、卓上ミシン一臺宛

一等 五〇〇名樣 (左の中御希望の品一點)
1、スデーブル小紋一反宛百名
2、本銘仙一反宛百名
3、晴雨兼用絹張洋傘一本宛百名
4、本皮製ハンドバッグ一個宛百名
5、電氣アイロン一個宛百名

試等 二、〇〇〇名樣 金色パール セルロイド製 嚴中化粧具 一組宛

―賞品全部東京松坂屋特選―

注意 一等賞品은各品共百名限이오니 希望者多數한境遇에는抽籤에依하야 賞品을交換하게됨으로本店에一任하여주시오

近代女性에게가장適當한超微粒子「크리ー무」

ヘチマクリーム

東京 ヘチマコロン本舖 天野源七商店

214CD.L

咸興南間을連結 運河開鑿說擡頭

五十噸船舶이自由運行토록 咸興繁榮會서計畫中

【咸興】함흥이 북조선상공중심도시로되여잇스며 장래더욱 약진함에는 흥남서호진(興南西湖津)의 두항구를 직접함흥과련결시킬필요가잇스며 그를련결함에는 반듯이 그사이를 운하(運河)로 선박이통행할수잇도록 하지안코는안되겟다는 설이방금함흥의유지들간에 맹렬히대두하야 근일중 그구체적운동에나아가기로되얏다

즉 현재운남면룡흥리(雲南面龍興里)에잇는 함흥도시계획의 종점에돌고잇는 함흥교(咸興橋)로부터 흥남항까지 약십리사이를 제방에따라 널비오간(間)가량의 운하(運河)를 굴착하야 장차오십돈이상의 선박이통행할수잇게 하려는것으로서 현재 함흥번영회(咸興繁榮會)가 중심이되야유지들사이에 그구체안에대한 여러가지협의를 거듭하고잇다고한다 이것이실현되면 함흥은해륙량방면의 중심지로서 명실그대로의 대도시로서 『[illegible]』하게될것이다

農校長一族殺害한 三名에死刑求刑

新義州法院에서

【新義州】작년십이월십칠일 강계(江界)농림학교장 하야(河野)씨의 집에 침입하야 일가족일곱명을 살해한후 방화까지하야 범행을감추려고 하엿다는 중국인 산동성출생 목수 왕세덕(王世德)(三七) 가튼곳의 리선청(李善淸)(三六)안동현륙도구(安東縣六道口)료리업(料理業)강히요(姜希堯)(三四)등 세명에대한 주거침입강도살인(住居侵入强盜殺人)급방화(放火)사건의 제삼회공판은지난십구일오후세시 신의주지방법원에서 국지(菊地)재판장 주심 미원(米原)검사립회하에 개정하야 심문이끗난다음 약칠오분가량에 달하는 준렬한론고가잇슨후 피고(被告)세명에대하야 사형(死刑)을 구형하얏는데 언도는 오는이십사일이라한다

長白縣附近에 共産軍이出沒

【安東縣】채목공사장백현(採木公司長白縣)지부에서 온정보에 의하면 지난 십일밤 십일시에 김일성(金日成)일파수십명이 장백현이도구강(長白縣二道崗)에 습래하여 십팔호에 방화하고 식량을 략탈하여 가고 십륙일에는 십구도구(十九道溝)부근을 공군(共軍)백오십명이 지내갓는바 십칠일 오전한시경 조국안(曹國安)일파 이백명이 동지부근 리봉관(李鳳觀)목공소에 습래하여 인부륙십명을 잡어가지고 만강(漫江)부근으로 향하엿다한다

木船이顚覆되여 三名이溺死

務安郡荏子島附近서

【木浦】무안군지도면 사옥도(沙玉島)에사는 김수상(金壽相)(二八)은 자기집 고용인 전모(全某)와 동리김모(金某)의 량인을다리고 지난십팔일 야채를싣고 임자면 전장포(荏子面前場浦)로가다가 돌아오든도중 임자면수도(水島)부근에서 폭풍과 파도에 휩쓸리여 배가 침몰을 당하자 사람살리라는 한마듸를 부르짓고 영영그자최를 감추어 바렷스므로 멀지안흔곳에서 이를목격한사람은 잇것만은 한번 침몰하자 다시 형체를 낫타내지안흐므로엇지할도리가업섯다고 하는데 그들은 모다독자(獨子)라고한다

國境一帶에大風雪! 各處에交通杜絕

十七日부터氣候突變

【新義州】국경일대에는 십칠일 새벽부터 기후가 돌변하야 본격적한고의 습격에따라 맹렬한 눈보라가 불리어 평북도처에교통두절을보이엿는데 교통두절된곳은 다음과가다고한다

▲東興▲厚昌▲慈城▲昌城▲中江▲渭浦

【新義州】신의주지방법원에서 국지(菊地)재판장주심으로 개정되여징역이년에 사년간집행유예를언도하엿다한다

平壤에流感猖獗 一般注意要望

【平壤】평양시내에는 십이월에 드러서부터 류행성감모(流行性感冒)가 창궐하여 각관청, 회사은행 각학교에는 결근자가 격증하고 각 가정에도 병자가 한두명식업는 가정이업다 이무서운독감은 점차전염할형세이므로 평양의생조합과 평양서에서는 선전 【삐라】이만여매를만드러 전시내에배부햇다 일반은 병에걸리지 안토록 주의함이조켓다고한다

軍官學校出身 李圭烈이執行猶豫

【新義州】정주군림포면(定州郡臨浦面)출생 남경군관학교(南京軍官學校)출신 리규렬(李圭烈)(二?)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사건의 판결은 지난십칠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국지(菊地)재판장주심으로 개정되여징역이년에 사년간집행유예를언도하엿다한다

慶南道起債總額 一千五百餘萬圓

道內住民一戶當四十圓

【釜山】금번신년도사업 현재경상남도의 긔채총액이 일천사백이십일만육천원 확대계시사원 이엿는데 금번도의 지방진흥토목사업비 일백이십일만 구천원을긔채하얏스며 도방금긔채를 준비중인 울산재해복구공사비 오십팔만오천원을 가산한다면 총합계가 실로일천오백일만 육백칠십사원이라한다 이것을 도내에 거주하는 호수사십만에 할당하면 일호당평균이 약사십원에해당하며 이다액의 긔채상환으로 말미아마 경남도의 재정은대단궁핍하여지겟다고한다

三十回馬山府會

【馬山】지난십팔일오후한시경에 마산부회의실(馬山府會議室)에서 제삼십회부회를 의원십칠명출석하에 개최하고 가사항을 결의한다음 의원황갑주(黃甲周)씨로부터 【우리들은】대마산건설에 잇서서 의원활동이 일치단결하여도부족한데 의원을차별대우한다함은 부세(府勢)진전에 다대한영향이잇다고』실례를드러공격한후중대시경에 폐회하엿는데 토의사항은 다음과갓다

1、昭和十一年度 馬山府歲入出豫算追加更正의件
2、火葬場費起債額變更의件
3、屠場費起債額變更의件
4、昭和十一年度 馬山府歲入出決算報告의件

女性同友會主催 編物講習開催

【鎭南浦】진남포 녀성동우회(女性同友會)주최 본보진남포지국후원으로 오는이십칠일로부터 일주일동안 과물동업회사(果物同業會社)이층에서 제일회편물강습회(編物講習會)를개최하리라는바 회비일원을 첨부하여 남포치과(南浦齒科)의원으로 신청하기를 바란다고하며 시간은 매야여섯시부터 시작하기로 되엿슴으로 각가정부인들도 다수참가하리라고한다

窃盜打盡

進永駐在所員

【進永】지난십사일 경남진영(進永)장날에 대절도단이 드러왓다는 정보를듯고 진영경찰관주재소에서 가등부장(加藤部長)을지휘하에비상경계선을 느리고 협의활동중 오후오시사십분경 진영정거장에서 어떤수상한자가 차표를 사고 긔차를 타려할지음에 경관은 수시그자와 그동행으로 지목되는자를 붓드러 조사하엿더니 그소지품중에는 『다이나마이트』오십사개와 도화선(導火線)륙십마듸를 발견하엿는데 그자백에 의하면 마산(馬山)해안공사청부업자 송본조(松本組)에서 절취하야 밀어자(密漁者)에게 팔러고 하엿것이라하며 그는 일단오명으로 각처로 도라다니며 절도피해액이 상당한 모양임으로 즉일 진영본서로 송치하야 목하 취조중이라는데 그일당은다음과 갓다고한다

本籍馬山府 李正泰(?) 竊盜前科二犯
同 金福植(?) 同 三犯
晋天郡 金長石(?) 同 二犯
昌原郡 李三福(?)
未詳 鄭在任(?) 竊盜常習 取調中

町民會를開催

【城津】지난십칠일오후두시에성진항행정(城津港幸町) 숫발청년회관(?靑年會館)에서 박경술(朴敬述)이하 유지제씨가 행정의개발을 목적으로 행정민회(幸町民會)를조직하고 다음과가티임원선거와결의가잇섯다한다

決議事項
一、道路改修의件
新任役員
會長 申洪均 顧問 申鉉道 尹演奎 朴敬述 李成洛 黃砂鵬天 會計 崔基述 書記 高吉龍 幹事 李順天 藤本眞市 執行委員 林星河 秋明倫 朴在歡 金敬順 金榮化 李光範 金鳳雙 岩政市 李鳳烈 一條

三南水害義捐金 一千圓을突破

【淸川】미증유의 수해로 수만동포의 참상을 목격한 평원군에서도 동정의 표현으로 의연금을모아다 동정을 표하기로 되엿는데 평원군내에서 의연금수입액이 지난오일까지 일천구십이원륙십팔전이 본군에 도달되엿슴으로 지난오일조선사회사업협회에보내엿다고한다

人口十六萬名中 絶糧者가四二%

乞食者만도絶糧者의二%超過 井邑郡民의災害慘狀

【新泰仁】금년미증유의 한, 수해에의해서 형언할수업는 참담한가운데를 면치못하엿다함은 누보도된바이어니와 이제 정읍군청에서 발표한통계수자에 의하면

1、井邑郡戶數 三三、一一五
2、總人口 一五九、六二一
3、絶糧戶數 一五、〇八八
4、絶糧人口 六九、九七一

로서 그중당장에 구제를안하면 류리걸식할경우에 처한자가 이만칠천구백칠십팔명이며 현재걸식하는자가 일천오백이십칠인이라는 엄청난수자로 절량자가총인구의 사십삼퍼센트이상이요 걸식자가 절량자의 이퍼센트이상이다

救濟副業獎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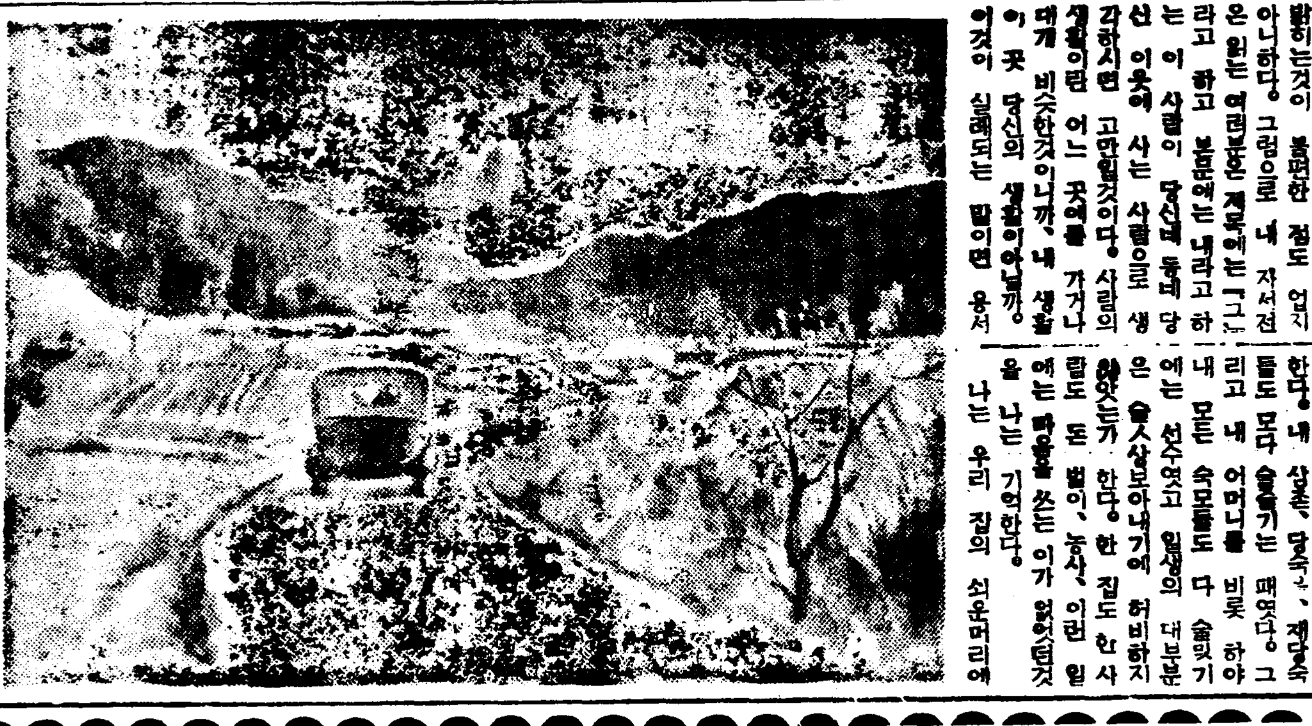
【釜山】경상남도에서는 풍수해리재민구제의일책으로 각종의부업을 장려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중 특지교(?)부업장려의 구체적방법을 계획중이던바 이지음완료되엇는데 그계획의 내용을듯건데 일천팔십호에 일천칠백십이원을 보조하야 십일만사천칠십두반(反)을 가공케 한다는데 그장려호수의 군별은 다음과갓다

南海二〇〇戶 山淸二一〇戶 居昌一五〇戶 昌寧二二〇戶 咸陽一五〇戶 陜川一五〇戶 合計一〇八〇戶

公州女師範設置 十萬圓基金造成

벌서五萬圓이應募

【公州】충남공주읍내의 여자사범학교(女子師範學校)설치와 농업학교(農業學校)승격이전으로 긔본금십만원을 당국과 부담을 약속하고 읍내에 여자사범학교설치긔성회를 조직하고 긔성회원은 십만원조성을목표로 활동한지 일삭남어지 지난 십팔일까지 최고 사천원으로 신탁한 금액이 벌서 오만여원에 달하야 불원간 예정금액 십만원에 달하야 명년도에는 사범학교설치와 농업학교승격이전이되게 되엿다하며 금번은 대흉수재로 지주요인 재산가의 도조수입은 사오할이상 감소가되야 극히 곤란을 밧는것도 불구하고 사범학교설치를 위하야 최후의결의을 다한것이라고한다



長篇小說 그의自叙傳【1】

長白山人 作 熊超 畫

어린적(一)

우리 집은 삼각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어떤 농촌이다. 지금 내 눈에 조선이라는것이 한 점으로밧게 아니 보이기때문에 무슨 도 무슨 군이라고 밝힐 필요를 늣기지 아니한다. 그러고 내가 아직도 살아잇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의 위치를 밝히는것이 불편한 점도 업지 아니하다. 그럼으로 내 자서전의 여러분은 제목에는 『그는』이라고 하고 본문에는 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신네 동네 당신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고만일것이다. 사람의 생활이란 어느 곳에를 가거나 대개 비슷한것이니까, 내 생활이 곳 당신의 생활이아닐까. 이것이 실례되는 말이면 용서하라.

조선사람의 조상들이 다 그러하엿던 모양으로 내 조상도 뒤에 산잇고 앞에 갈아먹을들이 잇고 개천이 잇고 그리고 사방이 쭉 싸인 곳에다가 터를 잡앗섯다. 그리고 뒷 산에는 선영이 잇고 솔밭이 잇고 밤나무가 잇고 울안과 집근처에는 사오명절과 제사에 쓰기 위한 배나무 대추나무 앵두나무며 아이들이 먹기위한 살구나무 복숭아나무가 잇엇다. 내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집도 그러한 집이엇다.

내 집에 호주는 조부엿으나 그는 과거도 보려아니하고 절머서부터 시와 글씨와 술을 좋아하고 또 중년에는 기생첩을 얻어가지고 판도 다 벗어버리고 주막을 내고 술장수를 하고잇엇다. 그는 풍신이 좋기로, 긔운이 좋기로, 풍류남아로, 필객으로, 주객으로 인근읍에까지 소문이 잇엇다. 그의 아버지는 학행이 잇다는 선비로 효자정려를 받은 이오, 그의 숙부는 문과로 사간을 지내고 그의당숙은 문과로 승지를 지나고 그의 조부는 문과로 장령, 이렇으로 그도 좋더면 정오품이어서 남행으로 가려라도 원 한 자리쯤 할수 잇는 문지엿다. 그러나 그에게는 도모지 벼슬이나 재물에 욕심이 업엇다. 다만 술먹고 친구들과 유쾌하게 노는것이 소원이엿다. 그가 주막을 내인것도 이러한 동기에서엿다.

내 아버지는 기품에 잇어서 조부보다 훨신 흔한 사람이엇다. 그는 초시를 하엿스나 대소과에 다 실패하고 역시 술먹기로 일을 삼앗다. 나는 어려을 때라 잘은 모르지마는 내 집 재산이 날로 기울어진것도 아마 이 술ㅅ때문이 아니엇는가 한다. 내 삼촌, 당숙, 재당숙들도 모다 술꾼들이엿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비롯 하야 내 모든 숙모들도 다 술빚기에는 선수엿고 일생의 대부분은 술ㅅ상보아내기에 허비하지 안핫는가 한다. 한 집도 한 사람도 돈 벌이, 농사, 이런 일에는 마음을 쓰는 이가 업엇던것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우리 집의 쇠운머리에 태어난 아버지의 만득자엿다. 내 집은 오래ㅅ동안 장손이어서 우리 동네(동네라야 다 당내다)에서 큰집이라는 칭호를 받는 집이엇거니와 내 아버지 형제가 다 사십이 넘도록 딸만잇고 아들이 없엇다. 내가 난것이 아버지 마흔두살 때, 어머니는 삼취가 되어서 스물두살 적이엇다.

아들이 늦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매우 걱정이엇더라는데, 그래서 대대로 다니는 T라는 절에 많이 불공을 들엿다고 한다. 조부의 일기를 보면 아모 달 아모날 T절에 불공, 라는것이 많이 적혀잇음을 본다. T절 이란것은 조고마한 절이나 덕이 높은 중이 잇기로 그 때에 유명하엿고 또 그 중은 후일에 내게 깊은 인상을 주기로 기억이 그리운 절이다. 그 이야기는 다시 나올 때도 잇을것이다.

내 아버지가 어느여름 초저녁에 평상에 누어 잠이 들엇을 때에 어떤 노승이 와서 학슬안경 하나를 주고가는 꿈을 꾸고 나를 보앗다 하야 내 이름을 수경 라고 지엇다. 목숨 수자 거울경자다.

나는 나는 때부터 병이 많아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밤을 새오는 때가 많앗고, 살것을 지못하엿다고 한다.

忘年會와新年宴會에는

朝鮮料理의元祖인

明月館으로

非常時財界打診 ⑧

事業成績

昭和七年以來 進行된 擴大財政政策은 그것과 竝行된 圖謀的 低金利政策、低爲替와는 同伴하야가며 日本產業界全般에 顯著한 好況을 招來하엿다.

昭五年末로부터 十年末까지 發行된 公債額은 一般、特別兩會計를 合하야 三十四億六千九百萬圓 이것이 全部 政府資金으로 撒布되어 新購買力을 提供한것이므로 그것만으로도 事業會社의 收益은 當然急激히 恢復되엇을것이다。同時에 他方으로 日本對外貿易은 圓貨低落으로 驚異的인 飛躍을 遂하야 昭和五年의 輸出入合計 二十四億九千八百萬圓은 十年度에잇서서 四十九億七千百萬圓에 達하야 今年度累計는 五十五億圓을 突破할것으로 豫想되고잇다。이리하야 貿易의 異常한 好轉은 一部에 貿易摩擦에 依한 低爲替의 影響을 伴하면서도 日本輸出產業에 全面的인 伸張을 招來하엿다。

三井合名調査部의 『最近銀行會社營業成績調查』는 社數千三百餘(그 拂込資本金額은 全國總額의 約六割五分을 占한다)에 對하야 拂込資本金에 對한 純益金의 比率을 내엇는데 이에 依하면 六年下期의 四分을 最低로 그後는 每期漸騰步調를 밟어 今年上期에 잇서서는 一割一分一厘까지 恢復되게 되엿다。

그러나 利益率의 增大는 勿論 各產業部門이 모다 同一한 步調로 行해지고잇는것은 아니다。政府의 財政的擴大가 軍需工業을 中心으로 行해지니만치 그結果로 顯著히 跛行的이 되여 皮革業 窯業 機械器具業 鋼鐵業 工業 機械器具工業等은 가장 好況을 示하고 製麻 製紙 化學工業 造船 造車 鑛業 商業 고무栽培等이 그다음이다。今年上期의 各業別의 利益率을 示하면 如左하다

業別	%	業別	%
銀行	一二、二	信託	一三、五
紡績	一四、八	毛織	一一、九
製麻	九、八	人絹	一三、二
麥酒	一九、三	製糖	一七、八
製粉	一四、四	皮革	二〇、一
製紙	一五、四	세멘트	九、五
窯業	二〇、二	化學工業	一四、四
鐵鋼	一六、〇	銅	一三、九
造船造車	二、四	機械器具	三三、九
鑛業	一四、一	商業	一三、三
百貨店	一〇、一	取引所	九、四
土地建物	四、一	電力	八、四
瓦斯	一〇、二	倉庫	七〇、三
海運	七、〇	고무栽培	一三、〇
平均	一一、三		

그런데 利益率의 增大는 十年下期까지는 大體順調로 上昇을 示해왓스나 今年上期에는 前期의 利率인 一一・三%에 그치고 이미 全體로 停滯의 傾向을 示하엿다 그러나 勿論 매우 不均衡한 形式으로 드러나고잇다。

例컨대 麥酒 製粉等은 成長을 繼續하고 或은 軍事的需要 增大로 著한 利益增加를 示하고잇는反面에 紡績 人絹과가튼것은 原料高 製品低에 脅威되어 昨年下期以來의 弱勢를 繼續하고 製麻、製紙、세멘트、鑛業、商業、百貨店、取引所、海運倉庫等도 모다 若干의 逆轉을 不免하엿다。

그러면 今期及來期의 成績은 어떠할가? 一般的으로보아 勞賃의 昂騰、原料高로 各產業은 ……

(以下 續稿 — 本欄 右下段)

部門이 모다 …… 있는것은 否定할수업는 事實 …… 今期決算을 通하야 …… 되고잇다 그러나 來期以降에 …… 잇서서는 一方으로 …… 노혀잇는 …… 反面에 …… 되고잇스며 그나마 金融業 …… 가 激化되려는 影響이 엇다 此 …… 日本產業界 全體 …… 에 對하야 …… 深刻 …… 繼續하야 勿論 …… 라고 …… 明年度 …… 第二次인 …… 時代가 展開될것 …… 의 인후레 景氣는 他面에잇서 相當히 急激한 物價高의 危險을 內包하고잇스며 또 租稅負擔의 重壓은 特히 法人會社를 내리눌르고잇다。따라 ……

…… 約束되고잇스나 그反面에 人絹、세멘트、倉庫等은 依然 …… 好轉의 希望이 업고 紡績과 가튼것도 最近의 原料高와 先物約定으로 一般의 安定은 期待되나 租稅加重은 또한 相當한 負擔이 될것이다。麥酒가튼것도 增稅에 依한 收益惡化는 不免할 形勢이며 化學工業은 例의 肥料統制法으로 當然壓迫될것이오 其他의 產業部門은 大體로 現狀程度의 收益을 繼續할수잇스면 成功이라고 보고잇다

春肥昂騰은宣傳 公定價로一元化

重要肥料統制令은年內發布 總督府側充分考慮

朝鮮重要肥料統制令은 늦어도 今年內로는 發布되리라고 하야 明春需要期肥料는 統制令에 依한 公定價로 取引케 될것으로 昨年과가티 肥料業者에게 無理한 市勢에 農民이 弄絡될理는 업스리라고 企待되고잇다。最近 問題의 硫安이 明春에 意外로 昂騰하리라는 放送이 有力히 傳하고잇스나 總督府農林當局의 豫想에 依하면 明春의 市勢는 昨今의 市勢以上 더 昂騰치는 안흘것이라고 보고잇다 그理由로는 今年 朝鮮의生產은 約四十一萬噸假量이고 明年朝鮮內需要도 四十一萬噸假量으로 보고잇다 即昨年은 意外의高價로 硫安의 需要가 減退되엇스나 今年은 昨年의 風水害關係로 一部需要가 減退한다해도 價格이 低下한때문에 多少需要가 增加할것으로 볼수잇서 結局昨年의需要量에 갓가운 數字를 보일것이다 또 日本內地는 農村의好景氣이어서 그需要가 增加한것만은 事實이겟지만 外安輸入等으로 朝鮮의配給의影響을 念慮하는것은 안될것이다 그代身補給할準備도 잇다해도 朝鮮은 朝鮮內에서 一部分輸移出을 한다해도 朝鮮은朝鮮內 配給第一主義에 則하야 無理한 市勢의 出現은 업시될것으로 보고잇다 또統制令에依하면 日本內地와 朝鮮은 公定價格으로 一元化될것인데 그러케된다면 朝鮮은 生產費가 低產한關係로 採算上더 有利케된다 그런關係를 考慮하야 朝鮮에는 配給網을 圓滑히하도록 十萬噸限하고 各地에 스톡을 하도록 하려는것인만큼 最近 宣傳되는것과가티 春肥의 昂騰은 업도록 總督府當局으로서도 十分考慮되고 잇다고한다

…… 滿洲各支店으로부터 卄名等 도라오게됨으로 結局十名의入行者로될것이다

契約改正具陳 工事單價引上?

◇…伊達土建會長 談

目下當協會에서 研究中인 土木建築의 請負契約改正은 日本內地關係方面의 資料를 蒐集하야 研究中이던바 …… 工事材料는 暴騰되고 勞銀도 昂騰하얏스므로 來年度豫算은 이工事單價引上이 焦眉의 重大問題로서 總督府當局의 諒解를 得하야 朝鮮에는 指名競爭할때에 土木建築委員會가 設置되어잇는데 日本內地官廳方面도 近間同樣의 方法을 取케될 것가튼다 …… 고잇는데 近間 總督府에 改正意見을 陳情하고저한다

東拓鑛業北中進出

東拓鑛業에서는 北中經濟開發의 一助로서 北中의 鑛山에 着目하던바 適當한것이잇스면 進出할方針으로 同社中川技師가 過般來北中에 出張調查한 結果炭鑛經營에 進出코저 準備中이라 한다

京城組合銀行 預金貸出趨勢

京城組銀의 預金貸出을 今年下期의 累月末推移로 보면 如左하다(單位千圓)

月	預金	貸出
七月	一三六、〇五五	一六六、五〇〇
八月	一四五、八二〇	一六九、八二二
九月	一三一、〇一四	一六〇、五五九
十月	一三〇、五五八	一六三、三一四
十一月	一四二、〇七九	一七七、七七九
十二月中旬	一四二、〇六九	一八〇、〇五二

內國郵便爲替振出

全朝鮮郵便局所에서 取扱한十一月中의 內國郵便爲替 振出口數는 三十三萬三千六百二十口、그金額一千百九十五萬九百十一圓을 拂渡口數는三十二萬二千六百二口 그金額一千百十二萬八千百九十七圓이엇다

京電增資斷行?

京城電氣會社에서는 今月末로써 本期決算을 마감하고 一月二十七日頃 東京丸之內工業俱樂部에서 株主總會를 開催할터인데 今期는 電車、電氣其他收入이 激增되어 業績이 良好하나 株主配當은 前期同樣 一割据置로 內定하얏다 그리고 來期는 長津江水電으로부터 受電設備키爲하야 그工費가 上、下兩期에 約百萬圓을 要하고 其他興業費를 合하야 相當多額의 支出을要함으로 增資의 必要가잇서 明年上半期中에는 增資를 斷行할러이다

그리고 增資額은 壹千萬圓增資하야 二千五百萬圓으로한다는說과 三千萬圓으로 倍額增資說의 兩說이잇는데모다 決定되지안햇다

朝鮮人側의 取引停止處分이多數

十七日까지卄三名中十七名

京城手形交換所調査에依한 十二月一日부터 十七日까지의 不渡手形을내이어 取引停止를當한사람이모다 二十三名이며 朝鮮人이十七名이다。그리고 停止解除가朝鮮人으로 一件이잇다。

朝銀支店長會議

朝銀滿洲支店의 興業銀行讓渡에伴한朝銀의 支店長會議는 二十一日 午前十時부터 加藤總裁司會下에 開催하고 朝鮮內支店長 關東洲支店長等 十五名及入京中인 松原興業銀行 副總裁出席、加藤總裁로부터먼저 滿洲支店의 分離에至한 經過大要를述하고 今後의 營業方針을 指示한바잇섯스며 業務上의 諸種協議가잇섯다

滿洲興業銀行 支店改廢斷行

松原副總裁 談

松原滿洲興業銀行副總裁는 朝銀의 支店長會議에 出席키爲하야 二十日入京하얏는데 如左히말한다

新銀行의 營業開始의 準備는 着着進行되고잇는데 本店은 新京大同大街大興公司빌딩을 빌리엇다 朝銀의支店、滿洲銀行、正隆銀行의 支店이競爭하는것이잇슴으로 支店의廢止를斷行할러이다 結局十支店쯤으로減縮코저한다 그結果剩員이생기겟스나 失職者는내지안켓다

明年度石油配定

內外油比前年一割減

明年度의 朝鮮內石油配定은 各方面에서 注目中이던바 大體如左히 決定되엇다

一、內外油配定은 前年度의實績의平均一割減

二、割石의配定量은 自然增加及上記一割을受할러인데 變化製品의市中販賣時는 若干變更그리고問題인것은 旣存內外油各社의總配定의二割을減하고 이各社別의配定을 如何히할지가問題이라한다

明年初市勢豫想 懸賞募集

初立會 (一月四日)

朝取期米 三月限寄附値(前場寄附)

朝新株 朝取短期前場寄附値

東新株 同上

(以上豫想은左記項目으로募集)

賞品

一等 十圓 三名

二等 五圓 六名

三等 (朝鮮日報一個月購讀券) 十二名

適中者多數인때는 抽籤으로定하고 만약 適中者가 업는때는 最近價로써 順次로 定함

▲締切 明年一月二日本社着에限함

▲發表 明年一月七日

▲注意 住所姓名을明記하야 朝鮮日報經濟部로보내고 用紙는葉書로 一人一張一題에限함

京城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

三井物產增資

三井物產京城支店入電에 依하면 三井物產에서는 十八日臨時總會를 開한結果 資本金을 五千萬圓增資하야 一億五千萬圓으로하기로決定、重役改善補選을 行한結果 新取締役에 渡邊四郞(石炭部長) 赤井久義(名古屋支店長)氏가 選任되엇다한다

經濟界消息

○證券金融据置=朝取傍系의 證券金融에서는 來十二月末로써 滿期決算을 맞으랴는데 下期成績은 證券界活況에 依하야 順調이나 內容을 改善키爲하야 七分五厘의 現行配當을 据置內定、總會는 明年一月十八日開催豫定

○二宮鮮滿拓殖總裁=滿洲國과重要折衝=渡滿中의 二宮鮮滿拓殖總裁는 二十日新京에서 滿洲國關東軍首腦部와 重要會見 滿洲의土地買入 殖民 金融等의 政治的折衝을하얏는데 同日中에 折衝이안되면 繼續하야 折衝하리라고

經濟寸鐵

○京城商工會議所는 中央市場問題에對한 態度를 決定코 陳情

○그內容은 『卸賣人會社創立에 關係營業者를 廣汎히 收容하라는것뿐』

○問題는 여것뿐이아니겟는데……

○南大門市場商人들의 要求이왕이면 좀加味해주어뜨면 조왓슬것을……

○十二月에들어서도 京城의不渡手形은 朝鮮人側이 絶對多數

○왜이리만흔자? 朝鮮人實力의縮圖가이런가?

取引停止 (十二月十七日)

▲金融業京城府本町二丁目八四 鈴木濟▲鑛山業京城府竹添町三ノ小平亮二

○中央物產總會年一割配內定=中央物產에서는 二十二日 午後一時第十六回 定時總會를 開催하고 下期決算을 附議할러인데 配當一割据置로 內定하얏다고

商況 (廿一日)

期米 買上好感 强調

前場續强 再昨後場阪地三十圓十三錢止와共히 二十八圓二十七錢에 寄를止한 當市場은 一時休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十八圓三十九錢인 三丁高를 據하고 三丁高로寄를始한後 阪地十錢으로 十四錢까지 少戾하엿다가 二十七錢으로 十二錢에 止하엿다

後場强調 後場은 一千二十八圓三十一錢인 二丁低로 始場한後 三四錢 三十九錢으로 結局四十錢에 止場하다

市勢幾分强味 政府米買替로

政府米二百萬石買替에 對하야는 八十萬石 買上은 四十餘萬石에 不過하엿는바 今回政府는 突然五十萬石의 買上을 發表하엿다 此에 對하야는 一般이年內의 實際與否를 알지못하야 疑問中에 方針을 確定하지못하고 잇는바 再昨後場에 至하야 此價發表도되기前에 미리行動을 加하고 發表後인 今朝에는 幾分强味를 添하얏스나 意外伸暢의 感을 드러냈다 그러나 當地만은 顯著히强硬하야 再昨後場 二十八圓

仁川在米增加

十二月十九日現在 仁川在庫米는 前週에 比하야 合格米가 一三、四七五叺의 增加를 示하엿는데 在品을 細別하면 左와 如하다

▲玄米 四斗入五六、一八六叺 五斗入九、八二四叺▲白米 三九四八叺▲正租 叺入一五五、五一一叺 俵入三八俵▲大豆 四一、〇〇叺(?)

群衆買의 場面 新年을압두고

本年의 產地農家는 例年보다 도 賣惜方針이 一層强固하야 十月의新穀期로부터 出廻期인十一、十二兩月을 經過하기까지 價의 瓦落을招致하지안흘 範圍에서 平均賣出이나 다름업시 賣放하는 關係上米價는 꾸준하게 高價를 支持하여왓다 그러는가운데 政府는또 五十萬石을 買上하기로 發表하엿슴뿐 아니라 例年과如히 越年後에는 春高氣分의 高價를 示할것이라는 觀測에 群衆買의 光景을 呈하고잇다 果然 農家의 態度가 繼續强硬하고 또正米의 實勢가 依然 高價를 維持할것으로 보면 買方針의 營業을 得하엿다 할지도 未知이다 그러나 軟派는 此에 反하야 昨今의 米價가 日本內地의 豐作으로의 行動을 餘儀업시 一巡한것으로 보지안흘수업손속 잡아라 戾價를 待하야 賣方針을 取하기만 하고 또한 主張하다 果然 年末年始의 米界事情이 如何히 轉變될지 警戒를 要할時期이다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歲末이나 新春에 亘하야 金融界는 大體緩慢狀態를 繼續할것으로 보고잇스므로 人氣는 繼續하야 小康하야 第三回五分 一、二回四分利共히 五錢高이오 佛貨도 好調를 示하고 實物도 閑散이나 市勢는 小高로 二回四分은 五錢高를 告하엿는데 米貨는 冬寒으로 一、二十錢低의 區區全혀保合商狀이엇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〇二〇 ▲一回四分利 一〇〇五〇 ▲佛貨 一九五六五

▲甲五分利 一〇〇、七五▲第三五分 一〇〇、五▲二回四分一〇一、五▲佛貨 九六、五〇▲米貨 六分半 一〇〇 ▲滿洲公債 一〇〇、四〇

今日財界 (廿一日)

◆米

	(單位錢) 今日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二六、四〇	二三高
大阪期米 先限	三〇、一四	六高
㊂三等米 一石	二六、〇八	不變
京城一等白米 百키로	三〇、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價 三等	[illegible]	[illegible]
고무 A F Q	七一錢	不變

◆株

	今日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糸	三〇、〇〇	[illegible]
大阪綿花	二六、〇〇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堂島主要賣買는 如左하다。

賣方 地場 中東側 東京側 賣

買方 丑政 朝鮮 地場

朝取期米取組內容 (單位百石)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閑散

實物薄、買氣薄의商狀을 不改하야 場面은 不氣氣閑散裡에 保合이엇다 ㊂三等二八、四〇 四等二八、一〇 一等白米二一、〇〇

仁川保合

產地賣物이 不振이다 買入發表가 人氣에는 無影響으로 無活氣保合裡에 取引은엄다 ㊂三等二八、四〇 四等二八、一〇 白米 二一、七五

釜山反撥

休日後이나 市場은 定期高와 精米側의 好價買進으로 市況은 二十錢反撥이엇다 移出商에는 低價賣겨운買

大邱底堅

買上好感으로 氣配十錢高를 告하엿스나 價位騰貴는 잘成立도지안는다

群山少高

頑着二十六輛이잇스나 거의 買付物이오 新規實物이적고 昨夕發表된買入好感으로 日本內地賣買가相當히잇고 當用側의 必要買로 市勢는十五錢高이엇다

木浦堅調

五十萬石의買入發表로 人氣多少好轉되어 十錢高를보다 閑散이나 取引은 ……

遊後鑄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仁川 益夏商店 米 株 京城 金益證券店

仁川 期米 仁 仁川海岸町 紺谷取引店

仁川 期米 大 マルダイ トリヒキテン

金融 (廿一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勢 ◆日本銀行勢 ◆東京金利 ◆京城手形交換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塊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 (廿一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廿一日)

◆京城綿糸布市況 ◆京城絹布 ◆滿洲特產市況 ◆大連特產 ◆日本麥粉市況 ◆外砂糖 ◆大阪砂糖 ◆橫濱生糸 ◆大阪人絹現物 ◆各地人絹 ◆大阪綿糸

[illegible]

株式 (廿一日)

◆朝取短期實買高 ◆東京短期 ◆東京短期組取 ◆東京現株 ◆朝取短期 ◆短期主要株取組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大阪短期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廿一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東京期米 ◆大阪正米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

[illegible]